



영광의 시대

상대적이고 절대적인

66 연애하면서 잘 살기, 연애 안하고도 잘 살기 99

나운경 선생님과 함께 하는 '연애대란'

6월 4일 늦은 6시 인문관 IIB09

연애를 하는 사람이든 안하는 사람이든
우리는 모두 '연애'라는 것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연애 속에서는 그 관계에서
수많은 고민에 휩싸이고 갈등에 부딪힌다.
연애 밖에서는 연애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지속적인 목소리에,
정말 연애안하는 자신이 뭔가 부족한양 느끼게 된다.
이러한 고민들, 걱정들, 당신 혼자만 하고 있던 것은 아니다.

'밥값은 누가 내지?', '얘는 왜이렇게 말이 안통하지?'
혹은, '혼자 영화보러가는 것이 이상한가?'
'왜 자꾸 나에게 연애 안하나구 물어보지?' 하는
일상의 사소한 물음이나 혼란들,
비단 당신 혼자만 겪는 것들이 아니다.
이러한 것들을 함께 이야기해보고,
'더 즐겁게 연애하기, 당당하게 혼자이기'의 해답을 찾아보자.
어떻게 연애를 하는 사람이건 연애를 하지 않는 사람이건
연애라는 것에서 조금은 더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

나운경 선생님과 함께하는 '연애대란' 강연회를 통해 더 즐겁게 관계를 조율하
고, 자기 삶을 긍정할 수 있을지에 대해 신나게 이야기에 보자!

연애대란

상대적이고 절대적인 연애 대백과사전

서문 지금 연애에는 '연애'라는 유령이 떠돌고 있다 02

본문 1. You call it "연애" -연애를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들 04

- 1) 연애, 분홍빛 행복의 베일을 벗고 관계를 직시하자
- 2) Before 연애 After
 - 1) 왜 말이 안 통하지?
 - 2) 연애에서 사랑으로
 - 3) 연애, 로맨스를 재가하라
- 3) 난 이런 연애를 바래, 내 연애는 이래

본문 2. 이보다 더 복잡할 순 없다 - 연애 들여다보기 11

- 1) 연애 속 남녀관계 그 미로 풀어내기
 - 1) 연애, 토크 talk 토크-특별대담
 - 2) 두 지류가 만나 하나의 흐름 되기
- 2) 여자와 남자의 연애, 시원하게 깨달려보기 23
 - 1) 연애용어대사전
 - 2) 연애에 들어가자 전,
 - 1) 그의 이상형, 그녀의 이상형
 - 2) 꽃단장에서 편안함으로
 - 3) '감정의 교차로'에선 누구라도 그 무엇이 될 수 있다
 - 3) 연애가 시작된 후, ...28
 - 1) 연애 Step 1,2,3
 - 2) '착한 여자 되기'-熱나게 손해나는 짓
 - 3) 컴퍼스커를
 - 4) 연애와 군대, 여자와 담배에 관한 짧은 생각
 - 5) 섹스, 아왕 하는 거 잘해보자
 - 3) 여성주의자로서의 나는 37

본문 3. 브레나비스타 솔로 클럽-연애 경계 밖의 이야기 38

- 1) 단박친구 상담해주기
- 2) 사실과 진실 사이
- 3) 내가 왜 솔로나구? 그게 왜 궁금한데?

본문 4. 방해마, 김요마, 까부술거야 -연애각본에 뜬새 내기 42

- 1) Are You Ready?
- 2) Oopse...I did it?
- 3) 거기에 다른 연애가 있었네 -연화 별점소개
- 4) 순정만화의 히로인 '밤보글 카쿠' -가상인터뷰

지금 연세에는 연애라는 유령이 돌고 있다

"왜 다른 중요한 여성문제를 나두고 개인의 감정문제인 '연애'를 다루는 거야?" 라는 질문이 던져진다면 어떤 말들을 할 수 있을까?
연애행사와 자료집을 한참 기획하고 있는 중, 축제기간에 여러 군데에서 사랑과 연애를 주제로 다른 행사를 열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그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잘 모르지만 연애이야기가 사소하거나 오락차원에서 즐기는 것 정도에 머물지 않고, 진지하게 바라보길 바라는 학내의 분위기를 따른 행사들이 아니었나 싶다.

그렇다면 '개인적인 것이 가장 정치적인 것'이라는 말부터 시작해볼까? 이는 이미 우리에게 당연한 명제로 받아들여지고 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문제의식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는 일상적 문제에 사랑을 기반으로 한 관계맺음인 연애가 들어간다는 점을 생각해본 적이 있는가?

연애는 일상적 삶의 그 무엇보다 복잡하고 개인을 강렬하게 지배한다. 그것은 개인적 필요와 욕구에 의한 감정에서부터 연애하기로 약속한 두 사람의 의사소통과 조율과정, 커플을 둘러싼 주위의 시선들, 연애에 대해 진리나 상식처럼 떠들어대는 수많은 이야기들, 연애를 그려내는 노래가사, 드라마, 만화, 영화들까지 다 포함된다. 이 모든 것들이 실제 개인의 연애를 둘러싸고 있는 것이다. 연애는 두 사람만의 사적인 영역이면서도 그 관계가 순수한 사랑의 감정, 이해와 배려 그 자체만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하나의 문화이며 사회적 관습이자 제도이다. 우리는 이 연애에 환상을 품고 많은 기대를 걸다가도 개인의 의지에 기대거나 운명, 행운을 운운하는 것만으로 연애문제가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하게 되지 않는가. 주의의 여러 충고나 조언에 귀기울이게 되고, 결국은 연애를 냉철하게 또는 회의적으로 바라보게 되는 시점에 도달할 때가 있지 않은가. 남자는 이래, 여자는 이래라는 고정관념에 기대게 되는 경우가 많지만 말이다. 또 연애에 별 의미를 안 두거나 관심이 적은 사람들조차도 연애 이야기들에 노출되고 끊임없이 연애에 대해 생각해내도록 강요받고 있지 않은가. 아무튼 연애는 대학생에게 매우 중요한 이슈로 여겨지고 여겨지게 된다는 점, 개인의 고민거리 중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는 대부분 공감할 것이다.

대학생들은 특히 다른 사회적 신분보다 상대적으로 연애할 여유가 있으며, 연애를 할 때 감정에 충실하지 못하게 만드는 사회적 조건들(사회적 지위, 관습, 가부장제, 자본주의 등등)에서 비교적 자유로울 수 있다. 이 때문에 연애가 특히 대학에서는 당



연히 해볼만한 것, 나아가 해봐야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듯하다. 요사이 부모님들까지 대학생인 자녀들의 연애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신다. 중매결혼보다 연애결혼의 비율이 많아진 시대적 변화에 따라 우리의 뒷세대들에게도 우리 세대들의 연애가 인생에서 결혼의 필수적인 예비단계로 비춰지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남학생에 비해 취업환경이 열악하고 가사일이 책임으로 부과되는 여학생에게 시선이 집중된다는 문제도 사라지고 있다. 이렇듯, 대학생들의 연애가 자유스러워 보이는 만큼 실제 그렇지 못한 측면이 가려지고 속으로 곪아터지고 있을지도 모르는 일이다.

이 백과사전은 무조건 '연애를 권하는 대학문화'에 판지를 걸면서 다음과 같은 몇가지 주제를 담아본다.

- 첫째, 연애에 대한 여성들의 경험과 생각들을 드러내어 공유하고 여성의 관점에서 연애 재구성하기
- 둘째, 남녀의 연애관계에서 일어나는 갈등들을 들여다보면서 성에 따른 경험의 차이나 성고정관념에 의한 오해, 벽들 깨부수기
- 셋째, 연애담론이 소외시키고 있던 연애 외부의 목소리를 고집어내기
- 넷째, 연애의 고정된 각본에 틈새 내어보기

위 목지들은 생생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 연세대 학우들의 글들로 이루어진다. 청탁과정에서 쉽게 연애에 관한 자신의 생각을 언어화하지 못해 힘겨워하는 학우들의 모습을 보았다. 하지만 상당 부분 왜곡되고 희일화된 통설에 휩싸여 있는 유령과도 같은 존재인 '연애'를 자신의 경험과 언어로 실재화해보는 것은 진정 연애로부터 개인이 자기 주체적으로 설 수 있는 데 도움이 된다는 점에 공통적으로 수긍하였기에 어려울 수 있는 부탁을 들어주었을 것이다. 이 글들이 화장실 벽이나 익명게시판의 내밀한 연애고민들과 별개가 아니라는 점을 새삼 강조하고 싶어진다.

요컨대, 이 자료집 "상대적이고 절대적인 연애 대백과사전"과 연애대란 행사가 연애 담론 속의 성적권력 구조와 이성간의 의사소통문제를 직시, 곱씹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어 이전보다 연애를 무명하게 볼 수 있는 관점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 또한 실제 이성애 관계에서 상호주체적이면서 서로를 동등한 인격체로서 존중하고 배려할 수 있는 여지를 넓히는 데 힘을 실어줄 수 있었으면 한다.

나아가 연애를 둘러싼 관계의 '밖'에서도 이성간의 수평하고 진솔한 관계맺음이 이루어지는 데 보탬이 되길 바라는 건 지나친 욕심일까?



You call it “연애”

- 연애를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들

1. 연애, 분홍빛 행복의 베일을 벗고 관계를 직시하자

연애에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

연애인디며? 좋겠네~!

분명 '연애'는 대학생들이 한 번쯤은 해 봐야 하는 것 중 하나가 되었다. '사랑'이 아니라 '연애', 여러 남자들을 '만나 봐야' 한다고 하지, '사랑해 봐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사랑하는 감정'과 '연애를 하는 것'은 다른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애가 '사랑' 또는 사랑 비슷한 감정에 기반해 있다.

우리는 연애를 통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와는 다른 무언가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믿는다. 예를 들자면 외로움(매우 특별한 외로움이다)에서 벗어날 수 있고, 자신의 (거의) 모든 것을 이해해줄 수 있는 사람이 생기고, 누군가를 좋아하고 누군가가 나를 좋아해준다는 것도 즐거운 일이다. 서로 그 누구보다 우선이 되는 배타적인 누군가가 생긴다. '넌 내꺼야!', 그리고 (진짜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복잡하고 삭막한 현대 사회에서 한없이 자기의 느낌에 충실할 수 있고 정서적인 안정을 줄 수 있는 것도 연애라고 한다. 그리고 성적인 즐거움도 빼놓을 수 없겠지. 등등등.

연애를 통해 이와 같이 많은 것들을 충족할 수 있다면 좋겠다. 충족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그래도

우리는 계속해서 현실의 누군가와 연애와 사랑을 통해서 그것들을 충족하고 싶어한다.

너네 연애는 거 맞아?

혼자만의 짝사랑이나 둘 사이의 호감이 '연애'가 되는 순간, 행복은 피어오른다. 보통 연애의 그 어떤 시기보다 설레고 흥분되고 행복한, 밤이나 낮이나 햇살이 가루가 되어 온 몸에 내린 것 같이 신기하게 즐거운 시간인 것 같다. 이유를 분명히 설명할 수는 없지만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나오는 행복한 시기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인들에게는 그 마냥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만이 계속되지 않는다. 그러면 그 이후에는 도대체 무엇이 오는가?

흔히 감정의 만족이나 성적 만족이 연애를 하면 자연스럽게 충족이 될 것이라고 여긴다. 잠시/약간의 트러블은 있을지언정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 그런 만족을 얻는 것은 당연하고 간단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실제로 그 만족을 얻기 위해 우리는 끊임없이 머리를 굴리고, 앞뒤를 재고 조심스럽게 행동한다. 그리고 고민하는 데 지치게 되면 가장 안전한 장치인 일종의 '연애 공식'에 기대게 된다. 예쁘게 보이고 싶다고 최신 유행하는 복장을 하고, 마음이 안 내켜도 종종 문자메세지를 보내고, 마음

을 달래준답시고 더 편한 스킨십을 하고, 별 쓰잘데기 없다고 여겨지는 기념일조차 기억해내서(예를 들면 사귀기 시작한 지 30일, 33일, 50일 등) 이벤트를 만들고, 질투심을 유발하기 위해 괜히 다른 사람이랑 놀고... 이런 수많은 사랑의 행위는 이미 사회적으로 의미가 만들어진 것이다. "강력한 감정에 휘둘려진 개인들은 '이것이 진정한 나이고 이것이 바로 나이다'는 확신에 기뻐하는 바로 그 순간 이미 낯설지만 사실은 미리 규정되어 있는 역할을 연기하게 되는 것이다."* 는 지적은 옳다. 이 역할에 충실하지 못한 순간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이상하게 비친다. "사귀는 사이에 그러면 안되지~"

그건 껌네 사이 일이지. 껌어들이지 마.

연애가 그리도 특별한 '감정'의 영역이고 '사적'인 영역이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동의한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연애 바깥의 사람들은 둘 사이의 관계에 대해 일언반구하려 들지 않는다. 그리고 무언가 다른 연인들과 달라 보인다면 문제가 있는 것 같다 해도 그들 나름의 다른 관계를 만들어 가고 있다고 믿는다. 원불리 뭐라고 충고받았고 했다가는 욕만 먹기 쉽다. 아니면 둘만의 비밀을 발설했다는 이유로 연인 사이의 감정이 상하고 만다.

'사랑은 항상 그리고 오직 감정적인 토대 위에만 자리잡을 수 있다. 이를 조작적 용어로 말하면, 연

인들 외에는 아무도 두 사람이 사랑하고 있는지를 결정할 수 없음을 뜻한다. 이것은 두 사람을 위한 민주주의의 근본적 형태이자 가장 순수한 형태로 개인이 모든 책임을 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연애 관계가 위에 있는 말처럼 정말로 평등하고 똑같은 자유로움 속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가 현실적으로 부딪히는 수많은 연애의 문제는 두 사람간의 민주주의는커녕 기본적인 소통조차 되지 못하거나, 서로 '감정'의 문제라고 우겨대며 일방적인 요구로 합리적인 대화와 합의를 막아버리고, 그것이 '은밀하기 때문에' 당사자들 외 그 누구의 충고도 받아들여려 하지 않는 상황에서 일어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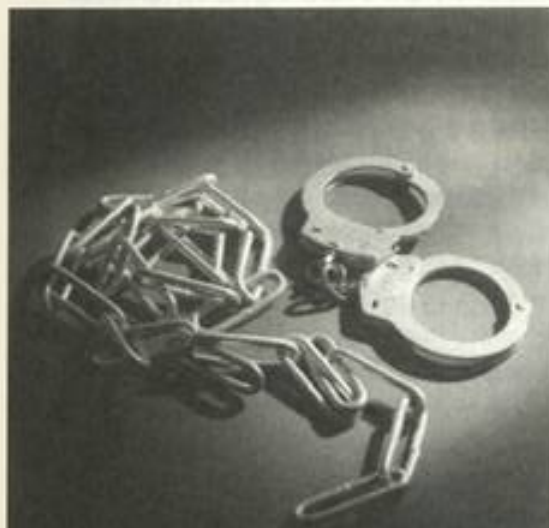
사랑과 괴로움 사이에서

관계 속에서 겪는 모든 어려움을 '사랑'의 이름으로 모두 용서해버리고, 연애가 끝나버리고 나면 그것을 단지 '감정이 식었다'고 생각해 버리는 것이 정당한가? 감정의 이면에 숨겨진 문제를 직시하지 않고, 자신과 상대방의 행동을 서로 성찰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는 것이 '사랑을 믿는다'는 말로 예쁘게 포장되어버린 것이 우리 연애의 현실이 아닐까? 그리하여 우리는 다시 똑같은 기대를 하며 연애를 하고, 또 똑같은 잘못들을 저지르고 마는 것이다.

왜 내가 아는 거 많은 사람은
사람의 과거 읽는 걸까
종아리엔 일도 많았을텐데
감수력 하는 이유는 뭘까 (공각)
난 항상 내 과거를 밝혀 왔는데
그게 싫어 떠난 사람도 있어(공각)
아~ 아 난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어
내 경험에 대해(후각)
-나는 나. 두두글집

* (사랑은 지독한 그러나 너무나 정상적인 혼란), 새물결, 율리히 벡, 엘리자베트 벡-게르사인, 배은경 외 옮김, 1999년, p328

**같은 책, p329



내 남자친구는 반학생회장이다.
반 활동에는 원래 소원했던 나로서는 이해하기조차 힘들지만 어쨌든 일이 많은 모양이다.
같이 하고 있는 학회를 빼고도 동아리가 하나 더 있고, 과외 2개를 하고 있다.
또 요즘이 군대 가는 철인지 내 남자친구의 친구들은 거의 매일 군대로 떠나는 것 같다.
그때마다 있는 환송회, 군대에 보내면 또 휴가를 나오기 마련이다.
그럼 또 술자리...
이런 일이 없을 때면 목숨과도 같았던 고등학교 친구들을 만나는 것 같다.
과제도 하고 조발표 준비도 하고, 늘 바쁘다는 말, 피곤하다는 말...

2-Before 연애 After

1)-연애상의 개인사적 변화 엿보기, 그 첫번째 왜 말이 안 통하지?

같은 학교에 다님에도 불구하고 1주일에 한 번 얼굴보기도 힘들다(거짓말 조금 보태면...). 어쩌다 정한 약속도 무산된 것이 벌써 몇 번인지. 사장이야 왜 없었으랴만은. 왜 꼭 나와야 하는 약속은 우선 순위에서 제외되고, 뒤에는 또 다른 약속이 꼭 있는 것인지.

이런 나의 구체적 상황과는 전혀 다른 주변이 나를 당황스럽게 해온 미/치/게 한다. 연애의 가장 좋은 점은 혼자 밥 먹기 싫을 때 부담 없이 불러낼 수 있다는 것이라던 한 선배의 말도, 내가 뭐 좀 하고 싶다면 '네 남자친구랑 해!' 라고 부담 없이 말하는 친구들도... 내가 무슨 어려움을 가지고 있을 때 '네 남자친구는 뭐하고 있지?' 라고 서슴없이 말하는 친구들도, 다 나한테는 어색하기만 하다. 그들이 말하는 남자친구와 나의 남자친구는 달라도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그들의 말들에 난 개의치 않는다고 생각했다. 늘 붙어 다니다가 헤어지고 난리치는 무수한 씨씨들과 난 다르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기념일 챙기기에 급급하고, 애정인지 집착인지 모를 것들로 주변 사람 불편하게 하는 커플들과는 다르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혼자서는 아무 것도 못하고 남자친구만 기다리는 바보 같은 여자애들 수없이 봤기 때문에. 연애하는 게 뭐 큰 자랑인양 떠돌고 다니던 애들한테 질렸기 때문에. 난 혼자서도 잘 살아왔고, 잘 살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문제는 그것이 아니었다. 연애는 다른 관계와 마찬가지로 '혼자' 하는 것이 아니었다. 서로가

'좋아한다'는 감정만으로 저절로 되는 것은 아무 것도 없었다. 연애는 엄청난 협상능력을 요하는 일이었다. 사실 내가 '동갑' 하고 연애를 하고 싶다고 막연히 생각했던 것은 이러한 부분이었다. 그렇지 않아도 불평등한 남/녀 관계에서 나의 서열까지 크로스오버 되면 얼마나 나는 더 관계 속에서 허덕이게 될는지... 일방적으로 내가 쫓아가거나 맞춰가는 것이 아니라 동등한 위치에서 '같이 만들어' 가고 싶었다. 하지만 웃기게도 나이와 상관없이 나의 연애는 불평등해졌다. 관계에 미숙한 어리버리한 나와, 나보다 더 아무 준비 없었던 남자친구가 만들어 내는 그 뼈고덕거림이란! 난 진정으로 대화하고 싶었다. 하지만 왜 나의 이유 있는 불만은 왜 쉽게 부정 혹은 빠짐으로 환원이 되고 마는 것인지. 지금 나에게 있어서 내 남자친구는 아직은 너무도 멀고, 낯설고, 모르는 것이 더 많은 사이이다. 난 그래서 많은 대화와 상호교류를 원한다. '소통'을 원하는 내게 내 남자친구는 '서로가 각자의 일상을 지켜나갔으면 좋겠다'고 말할 뿐이다.(이게 똥소리인지, 나두 내 일상을 사랑한다구!) 남자친구가 나만 바라보고 살기를 원하는 것은 아닌데, 일상을 포기하면서 서로에게 기대고 매달리는 소모적인 사랑을 원하는 게 아닌데, 각자의 일상을 지키면서도 서로의 일상을 공/유할 수 있기를 바란 것인데, 왜 말이 안 통하는 것인지.

피휴... 다시는 연애 안 할꺼다!

//00_외계인

예전에 '새 친구'라는 시트콤에서 좀 '뜨끔한' 에피소드를 본 적이 있다. 플레이보이인 남자가 돈 많은 여자를 만나서 사귀다가 헤어지는 과정이 즐거웠다. 그런데 이들의 만남은 남녀의 구도가 완전히 뒤바뀌어 있었다. 여자는 남자에게 옷이나 밥을 사주고, 차로 '모시고' 다닌다. 거기까지는 그래도 괜찮았다. 전화 왜 안 하나고 달달하고, 헤어지는 순간에 매달리는 쪽은 남성이었다. 내가 그 시트콤을 보고 뜨끔했던 이유는 그것이 나의 경험과 상당 부분 일치했기 때문에. 그리고 남녀의 구도가 바뀐 상황에서 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연애라는 것의 정치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났기 때문이다.

2-Before 연애 After

1)-연애상의 변화, 그 두번째 연애에서 사랑으로

솔직히 말하자면, 나에게도 연애라는 것에 대한 환상이 아주 최근까지도 살아 있었다. 순정 만화나 하이틴 로맨스 같은 것에 폭 빠져 지냈던 거야 어릴 때니까 하고 웃어넘긴다고 치자. 주위에서 연애를 하는 친구들이 보여주는 소위 '콩깍지 쓰인 듯한' 행복한 모습은 부러움을 넘어 열등감까지 느끼게 만들었다. 훨씬 나중에 연애를 시작했을 때 '이전 똘이 이상해'라고 막연하게 생각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렇듯이 나는 그것을 사적인 영역의 문제로 환원시켜 버렸다. 조금 쉽게 얘기하자면, 내가 연애를 하면서 겪었던 문제들을 나의 문제 혹은 상대방의 문제라고 단순화시켰던 것이다.

흔히 연애를 시작한 친구에게 해주는 충고들이 있다. "남자한테는 핑계야 한다", "먼저 전화하거나 매달리지 마라", "여자는 애교가 생명이다" 등등 대충 비슷한 요지의 내용들인 듯 하다. 나는 그런 말들을 귀에 못이 박히게 들었고 그때마다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이름이 떠올랐다. 연애도 결국은 요령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하지만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혹자는 말한다) '절대적' 사랑의 신화도, 기술적으로 요리조리 상대방을 끌고 가는 이른바 '연애술'도 나에게 정답을 주지 못했다. 두 가지 주장 모두 연애 역시 사람과 사람이 동등한 입장에서 나누는 '관계'라는 사실을 간과했고, 그래서 그 당시에는 무엇인지 모를 찜찜함을 안겨 준 것이다.

처음에 든 예에서도 나타나지만 이 사회에서 연애라는 것은 어찌 보면 남녀사이에서 아주 일상적인, 그러나 사적 영역이라는 이유로 당연시되는 권

력관계의 연속이다. 데이트 공간 같은 것은 조금 극단적인 경우라고 하더라도, 주로 남성이 관계를 이끌어가고 여성이 따라가는 형태를 우리는 너무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 내가 불편함을 느끼면서도 연애에 대한 환상을 버리지 못했던 까닭은 결국 정형화된 연애의 모순된 관계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늘 "언젠가는 진정한 사랑을 만날 거야"라는 신데렐라적 사고에 빠져 있거나 남자와의 관계를 어떤 식으로 조정하라는 친구들의 뻔한 충고에만 귀를 기울이고 있었던 것 같다.

그러면 연애 같은 게 하지 말자고? 사실 그렇게까지 할 자신은 없다. 이 글을 읽는 사람들도 그런 마한가지일 것이다. 다만 연애가 순수한 인간관계 이기를 방해하는 요소들을 걷어 치워 보자는 말이다. 이런 얘기를 한다면 따뜻하거나 청량 있는 측면이 사라지고 지나치게 합리성만 따지는 '착박한' 관계를 연상할지도 모른다. 나 자신도 새로운 연애의 상을 제시해 보라고 하면 솔직히 막막하다. 답답하거나 불편하지 않으면서 서로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연애라는 이상주의에 매달리느니 그나마 말이 통하는 남자를 만나 적당히 포기하면서 지내는 것이 어떨지 소모가 될 뻔했다는 회의도 든다.

내가 다시 누군가를 만난다면 어쨌든 그 대답을 찾아가야 할 것이다. 아직까지는 문제제기를 했다는 것만으로 스스로에 대해 대견해 하면서.

//97_무명씨



1)-연애상의 변화, 그 세번째 연애, 로맨스를 제거하라!

1년 넘게 지낸 지금의 여자친구 이전에, 난 다른 사람을 사귀어 본 경험이 없다. 주위에는 고등학교 시절부터 연애에 관심이 많고 동시에 실전경험(?)도 풍부한 친구들이 많았지만, 대학2년이 되기까지 나에게겐 그 흔한 연애경험 하나 없었다. 덕분에 여자친구를 사귀기 시작하면서 난 그때까지 미뤄둔 연애 공부도 함께 시작해야 했다.

연애 경험이 없었다는 말에 대강 짐작하는 사람이 있을 테지만, 연애 초기의 난 서투른 로맨티스트였다. 아무 날도 아닌데 난테없이 꽃을 들고 나타난다거나, 하루라도 얼굴을 보지 못하면 가슴을 졸이는 그런 사람 말이다. 좀더 속스러운 고백을 하자면, 그 당시의 난 여자친구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할 준비가 되어있었다. "헌신 준비, 이상무!" 뭐, 이 정도의 마음가짐이었다.

이런 모습을 귀엽다거나, 열정적이라고 보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경험상 그리 썩 적절한 연애방식은 아니었다. 단순히 남보기에 달살스럽기 때문도 했지만, 그런 행동들이 결국 나와 나의 연애를 옥아했기 때문이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난 성인군자가 아니다. 언제, 어디서나 누군가에게 헌신할 만큼 도량이 넓은 사람도 아니고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도 아니다. 치사한 일이지만, 누군가에게 무엇을 주고나면 나도 상대방에게 그 "무엇"을 기대하기 마련이다. 밥을 사주면 똑같이 밥 사주길 기다린다는 뜻이 아니라, 내가 타인에게 쏟는 정성만큼 타인도 나에게 많은 에너지를 쏟아주길 바란다는 것이다. 사랑이란 이

름으로 세상에서 가장 멋진 왕자라도 되는 듯이 여자친구를 위해 "헌신"했지만 사실 그건 헌신이라고 부를 수 없는 것이었다. 헌신의 포장너머엔 언제나 받을 것을 쟁기려는 치졸한 계산이 돌아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연애가 숨겨진 쌍둥이 찾기도 아니고, 애정을 표현하는 방식이나 정성을 쏟는 방식은 사람마다 다르기 나름이다. 내가 하는 대로 여자친구가 나에게 해주라는 법은 어디에도 없었다. 그건 당연한 일이고, 상식이었다. 하지만 아쉽게도 연애를 처음 꾸려나가던 나는 이런 상식을 모르고 있었다.

"난 때면 이렇게까지 신경 써주는데, 쥔 왜 저렇게 무심할까?" 불만족스럽게만 보이는 여자친구의 행동에 섭섭한 마음이 내 연애를 물들여나갔다. 내가 해준 것과 여자친구가 해준 것을 비교하는 주판알이 뱅겨졌고, 치사한 마음에 여자친구에게 짜증을 내기도 했다. 당연히 관계는 점점 힘들어져 가기만 했다. "넌 왜 이렇게 하지 않느냐, 내가 이렇게 하는 걸 왜 몰라주냐." 는 식으로 유아적인 고집이 내 연애방식을 끊임없이 변조했다. 짐입가경이라고 했던가. 고집스러운은 오해를 불렀고, 오해는 실망을 만들었다. "애초에 무언가 맞지 않는 사람이었나? 이쯤에서 그만 두는 게 서로를 위해서 좋지 않을까?" 실망과 체념이 뒤섞인 고민들이 슬프게 쌓여갔다.

깨졌나? 사실 깨질만한 상황까지 가기도 했다. 하지만 다행히(?) 우리는 첫 연애를 꽤 만큼



용기 있거나 과단성 있는 성격들은 아니었다. 우리 애겐 차분히 관계를 되짚어 볼만큼 미련스러운 구석들이 있었다. 내 경우에는 다른 만남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다. 여자친구가 아닌 다른 사람을 만나고 다른 이야기를 나누었다. 친구들의 경험담을 듣고, 삶의 다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연애에 대한 낭만과 열정이 한 꺼풀씩 벗겨져 나가고, 나의 시간들을 쟁기기 시작했다. 조금씩 연애 이외의 것들을 찾아갔고, 여자친구를 만나기 이전의 생활을 떠올리게 되었다.

내 영역을 찾아가자, 연애가 조금씩 여유 있게 보이기 시작했다. 연애하기 전과 사뭇 달라져버린 나의 행동을 차근차근 곱씹어 볼 수 있게 된 것이다. 내가 왜 남들을 대하는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여자친구를 대했는지, 그리고 왜 남들에게 거는 것과는 다른 기대를 여자친구에게 떠 넘겼는지 말이다. 여자친구의 행동을 이해할 수 있게 된 것은 당

연한 일이었다. 난 더 이상 로맨티스트가 아니었고, 여자친구에게 로맨티스트가 되어주기를 기대하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뭐, 이 글을 보고 '안 주고 안 받겠다'는 심보 아니야? 라는 냉혹한 칼질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다. 그 날카로움에 식은땀이 흐르지만, 부담스러운 로맨스가 빠진 자리는 꽤나 유쾌했다고 감히 말해보겠다. 물론, 여자친구도 역시... 낯간지러운 얘기지만 지금 나와 여자친구는 연애시절 이후 어느 때보다 즐거운 날을 보내고 있다. 왜냐? 로맨티스트가 사라진 그 자리에는 좀 더 담백해지고 솔직한 소박한 사람이 들어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의 연인은 공감이라는, 꽤나 따뜻한 선물을 준비해 놓고 있기 때문이다.

//99_ 딱지



가 생각하지만 그렇게 커플사이클 일부러 성별
화하려는 경우가 꽤 있어서 참 화가 나. 주사가
심한 남자친구에게 맞고도 참고 사는 여자에도
있더라고.

일방적인 스킨십 vs 배려하는 스킨십

- 질:** 난 가끔씩 남친을 툭툭 친다. 나는 의식하지 못
했는데 "아퍼"하면서 왜 그렇게 폭력적이 되나,
"맞기 싫어?", "영, 싫어"라고 한 적이 있었어.
- 답:** 스킨십 유형을 들여다봐도 얼마나 상대방을 배
려하는지 알 수 있는 것 같아. 첫 번째 남자친구
는 나에게 어깨 두들 때 힘을 너무 많이 주어 그
때 그 불편한지 몰랐는데 두 번째 남친은 살
포시 없어서 비교가 되더라고. 그래서 경험을
해봐야 어떤 게 좋은 건지 알고 원하는 걸 요구
할 수도 있는 것 같아. 팔짱도 너는 껴라, 나는
간다 식으로 남자는 주머니에 손 찔러 넣고 여
자에는 졸졸 끌려가는 듯한 느낌으로 가는 커플
도 본 적 있어. 사소하지만 내가 한번 다르게 경
험을 하면 그런 게 되게 크게 다가오지.
- 또:** 나는 여자친구하고도 내가 팔짱끼는 편이 더 편
하고 켄 때 별로 의식하지 않고 하는데, 남자친



구랑 할 때는 고민이 되더라. 한때는 너가 나한
테 껴라라고 하고 다닌 적이 있는데 도저히 둘
다 불편해서 못하겠더라고. 그래서 그냥 손을
잡는다면 내가 그냥 팔짱끼고 다녔거든. 무거
운 짐을 드는 것도 비슷하잖아. 남자친구가 들
어준다고 할 때도 정형화된 패턴대로 하는 게
아닐까 하고 민감하고 냉담하게 반응하게 되거
든, 여자친구 사이에서는 순수하게 도와주는 것
으로 넘어가게 되는데도.

또: 사람들이 애교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말투를
남자친구랑 많이 쓰거든? 내가 너무 애교만점의
여자애인이란 틀을 나도 모르게 내면화하고 있
는 건 아닐까 고민스러워도 실제 재밌으니까 하
게 되고 남자친구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 기존의
남자상하고 많이 다르니까 더 좋아.

연애 무덤덤한 듯 보이게

- 답:** 주변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다보면 일부러 나
는 연애에서 별문제 없는 것처럼, 별로 신경쓰
지 않는 것처럼 보이려 하게 되는 것 같아. 주체
적으로 보이려 하다보니까 숨기는 부분들도 생
기고.
- 질:** 그러다 보면 남자친구에게 미안해지기도 해. 남
들과 있을 때 남자친구에게 일부러 툭툭거리고
별거 아닌 관계로 보이려 하게 되어서 말아야.
- 또:** 여성주의관에 있다보니 가끔 남자랑 연애를 하
고 있는 게 잘못된 것일까 검열하게 되는 부분
도 있어. 누구의 여자친구로 불리는 게 아닐까
신경 쓰이고.
- 질:** 선배랑 사귀는 여자한테 '형수님'이라는 말 많
이 써.
- 답:** 꼭 쓰지는 않아도 남자의 레벨에 따라 여자의
레벨이 조절이 되는 느낌이 있지.
- 질:** 누구의 여자친구로 자주 불리는 것들이 스스로
에게 부담스러운 거지.
- 또:** 꼬덕꼬덕, 남자에 의해서 자신의 정체성이 구성
되는 기분이..

나에게 사소한 것이 나에게 중대시

- 답:** 내 의견과 불만을 말을 안 하게 되는 게 쌓이면
나는 사소한 거라 생각해서 조그만 불만이 생기
도 넘어가다가 그게 쌓이다 보면 한꺼번에 다다
다하고 폭발할 때가 있거든? 남자 쪽은 많이
당황해하고 나도 내가 바보가 되어버린 것 같고
- 또:** '그런걸 일일이 다 말속에 기억해두고 있었던
말야, 실망이다' 라고 하지? 근데 그게 알고 보
면 정말 사소한 게 아니잖아.
- 답:** 어느 한 쪽에 사소한 게 어느 한 쪽에는 사소하
지 않은 문제인 거지. 예를 들어 남자애들이 자
기 친구 만났다고 여자와의 선약을 깨고 가버리
는 거 아무렇지 않게 생각 하지만 여자애들은
대부분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이잖아. 그런 것도
이해하지 못하니까 남자애들은 반박하지. 사소
하다는 기준이 주로 남자 쪽에 맞춰지게 되니
까.
- 질:** 나는 남친에게 다시 전화해서 "지금 생각해보니
까 아까 그런 부분이 화가 난다"라고 얘기하면
남자친구는 미안해. 안 그런다고 하면 나도 할
말이 없는 거니까. 근데 전에 한번 사건 사람은
이상하게 반응을 해. '내가 많이 사서 비싼 거
먹으면 내가 부담스럽지 않냐' 라고 하니까 "너
는 자본주의적으로 사고하고 나는 합리적으로
사고하는 거다"라고 분석하더라.

문화적 차이에 따른 거리감 조절하기

- 답:** 각자가 가진 문화적 정체성이나 산 배경이 특히
친밀한 연애관계에서 하나하나 드러나고 부딪
히게 되잖아. 예를 들어 "우리가죽은 어디에 밥
을 먹으러 갔다"거나 아빠의 일에 대해 얘기하
거나 할 때 계급적이거나 보단 문화적인 괴리
감, 낯설음이 느껴져. 하지만 그런 차이나 기분
을 이야기하는 건 참 곤란한 것 같아.
- 질:** 나에게 난 필요 없는 것 같아. 나랑 너는 안 맞
는 것 같더라는 애긴 빼놓고는 다 얘기하는 것

같아.

답: 돈 얘기 자체를 끄집어내는 게 힘든 것 같아.

질: 정말 계급문제로만 얘기할 순 없다고 봐. 쪼잔
해 보일까봐든지 해서 돈에 대해서는 일방적으
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아.

또: 그 사람은 돈을 벌고 특별히 돈을 쓸 때가 없거
도 하고, 나는 용돈 받는 입장이라서 연애비용
을 그 사람이 많이 내. 머 나중에 돈을 벌면 같
이 부담하면 되지 하지만 내가 너무 익숙해져버
리는 건 아닐까 걱정이 되긴 해.

답: 연애상대에게 길들여지고 끌려가는 느낌이 드
는 게 제일 힘든 문제인 것 같아.

질: 연애한 다음부터는 오히려 자기 일에 충실하게
되던데. 요새 우리는 서로 바빠서 한달에 한번
만나는 이상한 자태에 이르렀어.

답: 와, 경험이 많고 철이 들어서 그런 건가?

또: 정말 가끔씩 여성주의자다 보니까 우리 관계 모
든 것 하나 하나를 의심하게 되는 거야.. 가부장
적인 패턴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고, 명확한 확답은 없어. 그래도 나는 행운인
게 내 남자친구가 여성주의에 대해 말할 자세가
되어있다는 거지. 같이 얘기하면서 결론을 찾거
도 하는데 계속 내가 끌려 다니는 건 아닐까하
는 의심은 계속 되어서 괴롭하기도 해.

답: 나는 연애의 조건이 단 한가지야. 나랑 말이 통
하는 사람... 근데 없는고라. 미치겠어.

질: 나는 지금 애랑 말이 통하는데 가끔씩 내가 '너
는 고민 없이 연애의 전형적인 패턴을 따라해'
라는 불만을 얘기하게 돼. 차라리 애가 빠리하
게 생각하고 있으면 화를 내겠는데 스스로 괴로
워하면은 화를 낼 수가 없어.

답: 서서히 길들이는 수밖에 없대니까.

질: 그래도 나랑 놀면서 많이 깨진 것 같애. 그 연
애 여성주의에 대해서 나름대로 나보다 해박한 애
였는데 나의 경험들에 대해 할말이 없거나 잘
모르니까, 나는 여성주의자는 아닌 것 같다' 머
힘들어하더라



'화법의 차이' 이해하고 소통하기

다: 그런 것도 많지. 남자들이 같은 경우는 논리적으로 말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시달리면서 화를 낼 때도 차분하게 말하려 노력하는 그런 거 있잖아. 나는 내가 감정적이다 보니 화가 나서 싸우다보면 하고 싶은 말을 다 못하고 개한테 휘말리게 되는 거 있지. 정확하게 말해 "나는 너랑 얘기하는 게 대화하는 느낌이 들지 않아"라는 소리까지 했어. 그니까 개는 나의 감정적인 화법을 전혀 받아들이지 못한 거였어. 좀만 진지한 얘기를 하게 되면 둘 사이의 화법이 너무 틀리니까 두 사람이 어긋나는 거야. 하고 싶은 얘기가 전혀 전달이 되지 않는 거지.

열: 전에 사건 사람은 늘 그런 식이었거든. 어떤 것들은 논리적으로 분석을 해야 해. 나중에는 이 사람과 말하는 것 자체가 너무 겁나는 거야. 너무너무 싫었어. 나중엔 거의 말도 안 하다가 헤어질 때도 이 사람이 나와 헤어지려는 태도를 여러 가지로 분석해봤어.

(아이없는 박장대소) ^^: ^^ ^^ ^^ ^^ ^^ ^^ ^^

다: 논리적으로 대응하는 방식의 이면에는 "내 말이 옳다"라는 생각이 있거든. 경험의 유무를 인정해주지 못하는 그런 게 있었어. 어떤 얘기할 때 방어하고 싶고 좌우하고 싶은 심리는 대부분이 남자들에게 있는 것 같은데, 강압적이지 않은 권유일지라도 절대적으로 자신이 옳다는 전제하에 있거든. 한번은 내가 심각하게 이런 의견을 말했더니 맞대. 그래서 "만약 니가 옳지 않으면 어떻게 할꺼냐." 하니까 "하지만 지금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한대. 그러면 거기서 딱 단절이 되어버리는 게 있잖아."

열: 저번에 만난 그 사람은 내가 운동 싫어하는 것 등으로 엄청 지랄거렸어. 내가 나는 내가 노래방, 만화방 안가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안 그러

지 않느냐고 했더니 내가 노래방을 가야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해보래. 할말이 없어라.

또: 머야~~ 너 무섭다. 어이없어라.

다: 옳다고 생각하고 말하는 거랑 옳다고 생각하지만 열려있는 마음을 갖는 거랑은 별개인데. 켜 다른 사람한테는 그렇게 막나가지 않았거든? 신기하게도 나한테만 그랬어. 그니까 그 특별한 관계라는 생각, 우리는 친밀하다는 생각이 오히려 상대방에게 강압적이 될 수 있는 여지를 열어두는 거야.

또: 나는 어렸다면 그 사람이 선택이었어. 그리고 나보다 공부를 많이 했어. 그러다 보니까 같이 토론을 많이 했었어. 근데 하다보면 내가 항상 밀리는 거야. 여성주의에 관해서도 말이야. 토론하는 막판에는 내가 너무 화가나. 그래서 괴로웠었는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 사람이 말하는 방식이 나한테 기분이 나빴었던 거야. 뭔가 내가 너를 끌어주겠다는 애매한 느낌들이 있었어.

다: 옹알어, 알어!

또: 그래서 거기에 대해 얘기했었거든. 내가 그런 것 같다. 미안하다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들이 없어졌거든. 오히려 싸울 때 나는 냉정해지는 편이라 이제는 너는 왜 그렇게 냉정하고 논리적으로 말하느냐는 소리도 들어. ^^

열: 말하는 방식에 대해 얘기하는 게 되게 그런 게. 나는 사실 너보다 논리적으로 말 못한다. 그런 이론에 대해서 모른다고 말하고서 난 감정적으로 이러저러하고 내 경험을 받아들여줘라 나에게 맞춰달라고 얘기 못하겠는 거야.

다: 그건 그쪽이 되게 이기적인 거잖아. 나 같은 경우는 같은 동아리 동갑내기였는데 개는 중심인 물들과 잘 놀고 나는 겉도는 타인이었거든. 그래서 나를 중심으로 끌어들이려 노력하다보니



그곳의 노는 방식, 주제, 화법을 자꾸 나한테 주입시키려 했던 거야. 물론 좋은 의도였겠지만 끊임없이 "너의 화법은 잘못됐다. 그러면 사람들이 아무도 널 받아들이주지 않는다. 그렇게 감정적으로 말하지 말아라"라며 지적하니까 나는 너무 괴로웠어. 이전에 내가 있던 공간에서 나는 아무 자기검열 없이 자유스럽게 내 생각을 얘기하고 받아들여졌는데 이곳에서는 계속 지적을 받고 하니까 나중에는 말하기도 힘들어지는 거야. 너무너무 주눅이 들고 내가 왠지 잘못하는 것 같고 나는 너무 못전디겠는 거야. 개랑 깨진 후에 바로 그곳을 나왔어.

또: 이제 남친과 의사소통에서 문제가 정확히 생각이 났어. 정확히 말해서 자기 생각을 말한다기 보다는 나의 얘기에 대해 계속 평론가적인 입장에서 자꾸 논평을 하려드는 거야. "나는 이렇게 생각해"라기보다 "니가 얘기한 거 중 이런 부분에 대해 생각해봐야 하지 않겠냐. 그럼 이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해?" 그러다 보면 논쟁이 잘 안되는 거지. 나는 나의 생각을 말하기를 계속 요구받고 그 사람은 자꾸 나의 말에 논리적으로 모순되는 부분을 치기만 했던 거야.

열: 전에 사람은 자신의 그런 태도까지 분석을 하고서도 잘못했다는 말은 안하고 절대 안 미안해해서, 왜 그러냐 했더니 미안하단 말은 앞으로 안 그러겠다는 뜻인데 자기는 그럴 자신이 없어서 잘못하겠대.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는데. 마지막에 내가 그런 불편했던 점을 막 얘기하고 "듣

고있어?" "그래, 알았어." "할말없어?" "어, 근데 우리 계속 잘 지냈으면 좋겠어." "그래 끝어." 하고 그리고선 안 만나.

● 감정의 차이가 아닌 오해

또: 난 또 어떻게 있냐면, 연애를 유지하는 방식에서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잖아. 그런데 누가누굴 더 좋아하고 덜 좋아하는 방식으로만 치환이 되는 경우가 많아. 나는 꼬박꼬박 전화하는 거에 익숙하지 않고 내 남친은 사랑을 그때그때 확인 받으려 하는 스타일이거든. 나랑 내 남친 친구랑은 흔히 말하는 남녀관계를 약간 뒤집어 놓은 거 같기도 해. 한번은 내가 술자리에 있어서 전화를 한참 못 받게 되었는데 나중에 그 사람에게 전화가 와서는 막 울면서 연락이 안 되어서 너무 걱정했다고 그러는 거야. 나는 내가 일일이 머하는지 보고 받고 그 사람의 애갈 일일이 보고 받길 원하지 않을 뿐인데, 그 사람은 자기가 먼저 전화를 걸고 전화를 기다리는 입장에 놓여있는 게 자기가 더 맘을 쓰고 더 좋아해서 그런가하고 불만이었던 거야. 그러다 보면 사실은 분명 아는데, 내가 감정이 덜해서 그런가하는 생각까지도 하게 되고, 데이트 횟수를 서로 조율해나가는 과정도 사소해 보이지만 참 힘든 부분인 거 같아. 사실 이런 문제는 남녀간의 연애가 아닌 동성애 커플에서도 잘 일어나니까.

다: 문제는 연애가 자존심이 걸린 것으로 여겨지고 좋아하는 감정으로만 집중되어 표출되기 때문인 것 같아. 어떤 식의 행동도 감정의 문제로 해석하니까, 제대로 서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넘어가 버리는 악순환이 계속 되지.

열: 나는 그런 게 심한 친구들이 질투심이 강하다는 느낌보다는 정말 애가 정말 불안해하는구나.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계속 받고 싶어하는구나라는 느낌이 들어. 관계에 따라 내가 기다리는 입장이 되기도 해. 아무리 평소애 의지하는 친구라고 해도 개가 나한테 화달라고 부탁하지는 못해. 남

자친구가 오하려 날 기다릴 때가 훨씬 많아.

도: 난 요샌 남자친구에게 그런 얘기 잘하는데. 그 사람은 내가 하도 안 하니까 해주길 원했어. 내가 자길 적극적으로 원한다는 느낌을 받고 싶대.

다: 나는 동성친구에게는 이성친구에게는 한번도 그런 적이 없었어. 남친은 그런 걸 너무 기분 나빠하는 거야. 난 왜 나한테 애로부리고 알뜰, 짜증도 부리지 않는다는 "식"으로 예를 들어 기분을 들어달라고 할 수도 있지 않느냐 내가 집에 바래다 줄 수도 있는데 왜 거부하느냐 하는 거냐 라고 하면서 그러길 요구했었어. 나 스스로 그러면 안될 것 같다는 생각도 강하고, 내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아채고 와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당연히 들지만 난 그런 걸 먼저 요구해 본 적은 없거든.

알: 난 전화를 오래하는 정도야, 서로 안 오는 것은 거의 암묵적으로 합의가 된 것 같애.

다: 두사람이 서로 감정에 대해 어느 정도 신뢰하고 있으면 갈등이 별로 없을 것 같기도 해

도: 신뢰와 문제도 크긴 하지만, 서로에게 신뢰가 있다면 관계를 맺어 가는 방식이 서로 너무 틀려 오해하고 힘들어지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 감정이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설명하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커플들도 많이 봤어.

● 군대간 연인 면회하기

알: 남자친구가 군대간 후 애들이 만날 너 개 기다리라고 묻고 그랬어.

도: 나는 남친을 긴 훈련기간 끝에 4개월 만에야 만날 수 있었거든? 그때 공항에 같이 올라온 그 사람 친구들까지 같이 있어서 내가 어떻게 비춰질지 불편하고 신경 쓰일 수밖에 없었어. 다음부터는 친구랑 같이 올라오게 되는 경우는 터미널에서 말고 다른데서 만나자고 아예 미리 연락을 해주어, 남자친구도 친구들이 남의 여자친구에 대해 아는 어필고 하며 얘기하는 거 다 아니까.

다: 나는 원래 화장을 안 하잖아. 저번에 머리 그냥 질끈 매고 청바지 입고 면회를 갔었는데 이상하

게 혼자서 기다리는 경우가 많아 심심해서 혼자 걸어다니면서 기웃기웃 거리고 있었거든. 근대 나중에 남친이 자기 부대사람들이 네 여자친구 귀엽다고 되게 좋다고 했다고 얘기해주는 거야. '도대체 그 사람들이 난 언제봤대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고, 군대갔을 때 상황이란 게... 내가 아는 언니 같은 경우는 부대사람들이 그 언니에게 휘파람을 불고 그랬대

도: 열: 너무 싫어.

알: 나는 부대 안에서 담배 피다가 나중에 장교가 여자가 부대 안에서 담배 피다고 뭐라고 그랬어. 천박한 짓거리라는 식으로 얘기를 한 거야.

다: 나도 그랬어. 근대 그게 다 개한테 가는 거야. '니 여자친구 담배 피냐?' 머 이런 식의 얘기가 가니까 내가 부대 안에서 담배를 못피겠는 거야.

도: 그래서 내가 면회를 갈 일이 없다는 거 다행스럽게 생각해.

다: 나도 그런 소리 많이 들어. 소위 여자답게 보이는 언니랑 같이 있었는데 어떤 남자가 그 언니한테는 '참 남자친구에게 잘해줄 것 같다' 하더니 나한테 와서는 '너 남자친구는 참 피곤하겠다' 라는 얘길 하는 거야.



● 남자친구의 친구들

알: 커플이 남자친구의 친구들과 있을 때랑 여자친구의 친구들과 있을 때 미묘하게 달라. 남자가 상대적으로 여자친구들 있는데 오기 싫어하는 게 있어. 안 그래?

도: 나 같은 경우 남친이 다른 사람들과 있을 때 나를 대하는 태도나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는 게 느껴졌어.

알: 남자친구 주변의 관계에 힘들려 내 영역에서 다른 관계를 맺지 못했을 때, 그 관계가 끝나고 나면 힘들어져. 새내기들을 노리는 남자애들이 있잖아. 새내기가 곧바로 선풍기 켜져가 되면 다른 관계를 잘 맺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에 대해 제대로 배려하지 못하는 것 같아.

● 성역할에서 자유로워지기

....스킨십....

도: 남자애들은 일방적인 성적 요구를 쉽게 하는 경향이 있잖아. 내 동생의 경우 강간미수경험이 있어서 스킨십을 아직 꺼려하는데 남자친구가 그 이유를 알고는 엉엉 울기까지 하고 알았다고 했는데, 말로만 이해한다고 한 거지 나중에 아니더라고. 경험의 차이라는 걸 상대방 입장에 서서 인정해주지 않는 거야.

다: 나는 남친이랑 지하철 안에서 브래지어 예길 하게 됐는데 내려서 남친이 앞에 앉아있는 남자들 이 자꾸 더 가슴 쳐다봐서 민망했다고 나보고 조심하지 그랬냐는 식으로 얘기하는 거야.

도: 잘못을 한 건 남자인데도 여자에게 조신하지 못하다고 일방적인 비난이 돌아온다니까.

다: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내가 지갑을 잃어버렸는데 위로한답시고 날 구석진 곳으로 끌고가더니 막 키스를 퍼붓는 거야. 그러곤 자, 이제 기본이 좀 나아졌어? 하고 묻는 거 있지. 황당했잖아.

도: 연애하면서 스킨십 부분이 남자가 의사소통할 때 제일 어려운 것 같아. 서로 조율하고 요구

하는 것들이 힘들어.

다: 아무리 주체적이라 해도 거부권만 행사하지 요구권을 행사하기는 힘들어. 자기검열이 심해서. 남자들은 요구, 거부 둘다 거침없이 하잖아.

도: 거부권이라도 확실하게 행사하는 게 어디야. 아직 것도 잘 안 되는 편이니까

알: 내가 요구한 걸 게가 들어주었으면 내가 그리 원하지 않는 것이라도 거부하지 않고 들어주는 부분은 있는 것 같아. 어느 정도는 Give & Take 문젠데 균형잡기가 참 미묘하지.

....요리, 청소, 옷 고르기....

알: 남친이 자취하는데 밥을 제대로 챙겨먹지 않아 내가 정성스럽게 도시락을 싸주고 갔거든? 근대 필요 없다고 라면 먹으면 된다고 하는 바람에 너무 섭섭해 그 자리에서 평평 울었어.

다: 나는 일부러 남친에게는 그런 음식 만들거라던가 청소 등 가사일에 관련된 것들은 안 해주려 노력했어. 어떤 경우엔 동성친구면 도와주었을 꺼야.

도: 나는 나도 자취한 경험이 있어서 같이 서로 도와주는 편이야. 특히 우리는 같이 맛있는 거 만들어 먹는 게 큰 즐거움이거든? 남자친구가 오히려 꼼꼼하게 정성 들여 잘하는 편이야.

다: 옷고를 때 남자애들은 이웃지웃 입어보는 거 되게 쑥스러워하더라. 나에게 이렇게 하는게 더 어울리겠다라던가 코디는 잘해주는데.

....기계 만지기, 포옹, 근육쓰기, 에스코트....

알: 웹진 언니네에 여자 혼자 용산 컴퓨터단지에 가서 아가씨는 남자친구도 없어요? 라는 소리 들었다는 칼럼이 있었잖아. 나는 컴퓨터 다루는 걸 남자친구에게 많이 기대게 되는 것 같애. 굳이 힘들어지 않아도 되고 편하니까

도: 나는 그런 기계하고 친해지는 노력을 의식적으로 하는 편이야. 힘들긴 하지만 하나하나 배워하면서 익히니까 늘어.

다: 남친이 나보다 왜 키가 컸거든? 나도 개에게 어깨 두르고 싶어서 에스컬레이터 탈 때 한 칸 위에 서서 두르기도 했어.

또: 스킨쉽 할 때 남자가 나에게 기대는 느낌이 되게 만족스럽고 좋아. 무릎을 베거나 내 허리에 매달려있거나, 암전히 웅크리고 있을 때나 말이야.

다: 어, 먼저 알겠어.

또: 나는 낮가리는 게 심하고 좀 무서워서 면가 잘 모르는 사람에게 물어보거나 도움을 청할 때 남 자친구에게 부탁할 때가 있어.

다: 나는 특히 밤거리 걸을 때 남친이랑 걸으면 든든한 느낌이 들었어

....담배....

또: 길거리에서 남자친구랑 같이 담배 피면 길 가던 남자들이나 어른들이 직접 시바 걸거나 꺾어버리지 못해, 자기는 나에 비해 어디서든 편하게 쉴 수 있다는 의식을 못하고 내 사정 배려하지 않은 채 맘대로 피니까 난 기분이 나빠져 싸운 적이 있어.

다: 불 빌릴 때 남자친구가 빌리는데 충돌할 일이 적어지게 되긴하더라.

....오락....

다: 난 오락 거의 안 해봤는데 남친이랑 가서 침으로 격투기 게임을 한 적이 있었어. 아무 것도 모르면 더 잘되는 경우가 있잖아. 처음에는 코웃음을 치던 걸 내가 계속 거의 다 이겼거든. 내가 못할 거라는 말 취소했어.

또: 둘이 길을 걸을 때 남자가 여자의 의사와 상관 없이 여자를 인도 쪽으로 보낸다. 그게 '남자가 여자를 보호해주어야 한다'는 남자의 메너로 통한다는 거지.

다: 그런 것도 있었어? 난 처음 들어봐.

또: 평소엔 자주 바래다주려고 물어보고 하는 편인데 나는 별로거든. 저번엔 술에 많이 취해 신촌역까지 바래다주겠다고 계속 고집을 부려 화를

낸 적이 있었어.

다: 놀이공원에 갔을 때 바람이 뽕뽕 불고 날씨가 굉장히 추웠어. 커튼이 같이 서있었는데 남자가 안에 얇은 티셔츠를 입고도 코트를 벗어 여자친구에게 덮어주는 거야. 너무 품잡는 거 아니냐? 그 애길 집에 와서 우리 엄마에게 해주었더니 '그 여자는 그 남자를 정말로 좋아하는 거 아니냐?' 라고 하시더라. 좋아하는 사람이 추워하는 게 뻔히 보여 걱정스러울 텐데 말야.

....그밖에....

일대일 독점적 연애에 대한 단상

다: 그거 아냐? 내가 이 사람에게 특별한 존재라는 걸 확인 받고 싶은 감정?

또: 나는 누구한테나 그런 애길 하는데 연애가 아주 아주 친한 친구의 관계일 뿐이고 꼭 한명이랑 일대일 관계일 필요도 없다고, 하지만 그런 사람 별로 없잖아.

다: 말이 쉽지, 일대일 연애가 독점적이고 배타적일 수 있지만 누군가에게 내가 우선순위에 놓이고 싶어하는 감정이 본질적인 것 같아. 나는 내 남친이랑 양립되는 복수의 연애를 할 수도 있다는 상상이 잘 안돼. 받아들여지지 않아. "애인 하나 더 둔다"는 건 용납이 잘 안돼.

또: 나는 너만 좋아한다는 약속으로 감정이 독점된다 믿는 게 우습다는 생각이 들어. 감정이란 게 사실 그렇지 않잖아.

다: 연애의 독점에 대해서 얘기하기는 참 어렵다는 생각은 해. 하지만 여러 사람과 연애를 할 수도 있는지 아닌지, 자신이 가진 생각에 대해 상대방이랑 합의는 꼭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해.

또: 난 남친하고 사귀면서 여자는 남자는 다른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을 때 서로의 존재 때문에 그 감정이 서로 막히거나 하지 말자고 얘기하거든. 실제 도중 다른 사람처럼 정분이 났었고, 내 친구들은 너는 한번 당해봐야 한다고들 얘기하기도 해. 나만 바람이 난 거니까.

다: 그 감정은 인정할지 몰라도 지금과 같은 관계로 인정할 수는 없을 것 같아. 이론적 지향과 상관 없이 실제 나의 상황으로 닥쳤을 때는 불가능한 것 같아.

또: 나는 편찮을 것 같긴 한데 심심하고 짜증날 수도 있고, 경험하게 되면 또 다르겠지.

다: 난 그 연애 하나에 목숨걸고 살았기 때문에..

연애를 좋아하는 이유

다: 내가 연애한지 한참 되어서 그런지도 몰라. 한 100일 되어서 그 사람에게만 사람이 생기면 짜증났을 것 같은데, 이제 두근거리지도 않고, 그러고 보니까 한사람한테 그렇게 목매인 적은 없는 것 같아. 이 사람이 없으면 미칠 것 같은가 하면 아니거든. 나는 연애 안해도 그리 간절하지 않게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연애라는 게 정말 그렇게 좋아서라기 보다는 맘놓을 수 있는 친밀한 관계가 없으니까 연애로 그런 관계를 공인 받고 싶어하는 것 같아. 연애를 안 해보았거나 연애에 대해 아무리 다양한 상상을 하더라도 누구에게나 공통되는 지점인 것 같아.

다: 연애가 마지막 보루라는 느낌이 있지. 나 같은 경우에 연애에서 얻는 위안은 이런 부분이 커. 내가 모두에게 배척 당하더라도 항상 내 곁에서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고 기댈 수 있고 지지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 연애하기



전에는 자괴감이 많이 빠졌었는데, 연애를 하면서 날 좋아해주는 사람도 있구나. 날 확실히 특별하게 여겨주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위안이 되게 많이 됐고 지금 같은 경우도 아무에게나 하기 힘든 얘기들을 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게 좋아.

다: 난 자존감을 충족시킬 만한 관계들이 더 다양해지고 넓어지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어. 어떤 심리학쪽 수업에서 외모를 주제로 조가 설문 발표를 했을 때 마지막으로 드는 질문 중 하나가 '나의 외모에 만족하지 않는다고 위로를 받는 부분이 머냐?' 라고 했을 때 1위가 '그래도 날 좋아해 주는 사람이 있다. 연애를 한다'라는 거였어. 난 그때 연애를 안 했거든? 나는 끝까지 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

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자신이 초라하고 자신 없다는 느낌을 많이 받잖아. 자신을 좋아해 주는 사람에게 고마운 감정을 느끼게 되지.

다: 누군가 내가 먼저 다가오면 너무 그게 다행스러운 거야. 나도 누군가가 좋아해 주는구나하는 안도감 같은 거.

다: 내가 연애를 뿌리치지 못하는 건 자존감과 위안을 얻을 수 있다는 바로 그 점이야. 그 두가지를 얻을 수 있는 관계를 더 다양하게 넓히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 애인에게 얻을 수 있는 것들을 여러 관계에 분산시켜 얻는 사람을 보면 사실 많이 부러워.

다: 그래도 그런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을 부러워할 걸. 특별한 사람이 생기면 또 달라질지도 몰라.

다: 난 연애하면서 그런 분산의 노력을 덜 기울이게 되고 그래서 연애가 깨졌을 때의 공허감이 더 컸던 것 같아. 그래서 연애에 계속 기대를 걸게 되고.

다: 연애하면서 서로 조율하고 익숙해지는데 들인 에너지가 아깝고 엄청나서 관계를 깨고 다시 시작할 엄두가 안 나는 것 같아. 맞추어 가는 과정을 모험을 즐기듯 하는 사람은 연애를 쉽게 시작하고 쉽게 깨며 연애 상대를 자주 바꾸기도 하지만.

// 끝~

1 연애 속, 남녀관계,
그 미로 풀어내기

2) 오래된 연인들의
조울 경험담

두 지류가 만나
하나의 흐름 되기

앗! 벌써 10시가 다 됐다. 그리고 보니 오늘도 그에게 전화를 하지 않았다. 새벽에 출근을 하는 그는 10시에는 자야 하기 때문에 허겁지겁 전화기를 꺼내 그에게 전화를 한다. "혹시 자고 있었어?" (축 처진 목소리로) 아니! "미안, 하루종일 할 일이 있어서 전화를 못했어." "전화도 안하고 미워미워!!" "그러는 너는 왜 전화 안했나?" "맨날 나만 먼저 전화하잖아. 너 전화도 받고 싶어서 그랬지." "화난거야?" "아니야, 장난이야. 하루종일 바빴대 메."

전화 때문에 참 많이도 싸웠다. 내가 연애를 하고 있는 사람과 전화통화에 대해서 이렇게 평화롭게(?) 얘기를 할 수 있게 된 것도 그렇게 오래 되지는 않았

다. 전화통화를 둘러싼 우리의 충돌 지형을 간단히 소개하자면 이렇다. 먼저 나는 전화통화를 그다지 즐기지 않는 편이다. 애인과

의 전화통화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내 애인은 그렇지 않았다. 그는 최소한 하루에 한번씩은 통화하기를 원했다. 상황이 이러니 결과는 볼 보듯 뻔한 일. 항상 전화를 먼저 하는 쪽은 그였고, 항상 나의 전화를 기다리는 쪽도 그였다. 게다가 내 핸드폰의 배터리가 다 됐거나 전화벨 소리를 듣지 못해서 그의 전화를 받지 못하기라도 하는 날이면 상황은 최악이었다. 특히 이런 날이면, 내가 밤 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신혼거리를 잘 돌아다닌다는 것을 알고 있는 그는 아무래도 내가 여자이다 보니까 무슨 일이라도 있는 건 아닌지 걱정이 많이 됐던 것 같다. 하지만 내 입장에서 할 말은 많다. 내가 특별히 그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는 날이라면 모를까 "저녁이 되면 의무감으로 전화를 하고~"라는 015B의 노랫말처럼 별로 할 말도 없으면서 하루에 한번씩은 꼭 전화를 해야 한다는 의무감에 전화를 하기는 싫었다. 그리고 내가 어린애도 아닌데 전화 좀 안 된다고 그렇게 걱정할게 뭐람. 게다가 내가 좋아하고 하는 연애인데 이런 사소



한 일 때문에 그와 사사건건 부딪히고 싸워야 한다는 것이 나를 참을 수 없게 만들었다. '하루에 최소한 한번씩은 목소리를 듣고 싶은 내 마음을 왜 이해하지 못할까?' 라는 그의 생각과 '전화통화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내 방식을 왜 이해하지 못할까?' 라는 나의 생각은 끝없는 평행선을 달리는 것 같았다.

이 평행선이 만나게 될 수 있었던 데에 특별한 계기나 계우점(?)이 있었던 건 아니다. 계속해서 부딪히고 싸우고 서로의 입장을 듣게 되면서 평행선은 서서히 구부러졌다. 언제부터였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지만 연애는 자기 혼자 하는 게 아니라는 것, 상대방의 경험을 내가 완전히 이해할 수 없다면(우리는 '나도 네 입장 이해해'라는 말을 너무나 쉽게 하지만 사실은 너무나 다르지 않은가.) 상대방의 경험을 존중하는 가운데 의사소통을 시도해야 한다는 평범한 진리를 터득하는데 왜 그렇게 오랜 시간과 에너지가 필요했는지... 서로 다른 두 사람이 매우 친밀한 관계를 유지시킨다면 필연적으로 크고 작은 충돌은 피할 수 없다. 만약 나에게 그와의 연애를 유지함으로써 얻는 만족감보다 우리 사이의 충돌로 인해 받는 스트레스가 더 컸다면 그와는 헤어졌을 것이다. 하지만 서로에게는 연애를 유지함으로써 얻는 만족감이 더 크고, 따라서 연애를 유지하고 싶다면 서로가 가지고 있는 입장이나 생활 방식을 조금씩 조정해나가는 것은 필수적이다. 나는 이제 (메일메일은 역시 아니지만) 가끔씩 내가 먼저 그에게 전화를 건다. 그리고 내가 먼저 전화를 하지 않더라도 그는 예전처럼 화내지 않는다. 전화통화를 좋아하는 그가 나에게 전화를 하는 횟수가 전화통화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내가 그에게 전화를 하는 횟수보다 많을 수 있다는 것과, 그래도 가끔씩은 내가 먼저 그에게 전화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지난한 협상(?) 끝에 내린 결론이다.

꽤 오랜 시간동안 연애를 해 본 내가(지금의 애인과 연애를 시작한지가 벌써 3년 반이 다 되었다) 연애를 통해 터득한 가장 중요한 건 연애는 끊임없는 충돌과 협상과 합의의 과정이고 이러한 충돌로 시작해서 합의로 끝나는 과정은 계속 반복된다는 것. (물론 똑같은 방식과 양상으로 반복되지는 않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충돌을 조정해나가는 과정이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한 사람에게 맞추어가는 것이 아닌 '협상'과 '합의'라는 것이다. '협상'과 '합의'는 각자의 경계가 분명한 동등한 관계 속에서만 가능하다. 기든스(A. Giddens)가 '합리적 사랑'을 제시했던 것처럼 두 개의 서로 다른 지류가 하나의 흐름으로 만나지 못하고, 하나의 지류가 본류에 흡수되어버린다면 그 연애를 계속할 필요가 있을까?



내가 이 글을 쓰면서 무언가 연애에 대해서 달관한 사람처럼 글을 쓰고 있긴 하지만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걸 이 글을 읽는 사람이면 누구나 알 수 있을 것이다. 전화통화에 대한 것 뿐만 아니라 일일이 열거할 수 없는 무수한 싸움들을 해왔고, 앞으로도 어떤 문제에 대해서 싸우게 될지 모른다. 그리고 그러한 충돌을 조정해나가는 과정은 쉽지 않을 것이다. 비록 연애는 자기 혼자 하는 게 아니라는 평범한 진리를 내가 이미 언급했다고 하더라도 말이다.

이 글을 이제는 끝내야 된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계속해서 불안한 이유는 어쩌면 이 글이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사랑하며, 검은머리가 파뿌리가 되도록 어찌구 저찌구' 식의 주례사처럼 읽힐 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인 것 같다. 내 경험을 떠올리면서 뭔가 연애에 대한 맛있는 글을 쓸 수 있을 거라는 막연한 기대로 글을 시작했지만 막상 쓰고 보니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흔해 빠진 연애학을 다시 한번 반복한 것 같아 민망하기도 하다. 하지만 어쩌랴. 내가 할 수 있는 말은 정말 이것뿐이다.

1197 톨돌

1) 연애에 대한
말말말...

연애 용어대사전



1. 열 번 봐도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친들하니 잘해준다보면 언젠가는 '자기 것'이 되리라는 확신을 못남성에게 심어주어 흔히 스토커를 양산해내는 무시무시한 말. 대체로 그 여성이 처한 상황과 감정과 고민은 무시되며, 남성은 용기 백배하여 계속 '작업'을 추진한다.
<반대말> 여자가 대쉬하면 부담스럽다/ 잡되기 힘들다. 여성에게는 단 한번의 '픽업'도 허락되지 않는 냉혹한 현실을 반영한 말. 요즘은 이 냉혹한 현실의 벽을 깨고 자신의 감정에 솔직한 용기녀들이 많아지고 있음.

3. 2달 3초에 연애를 못하면 평생 연애를 못한다.

졸업과 취업이라는 사뭇 객관적이고 현실적인 근거를 들어 더 늦기 전에 연애를 해야한다는 강박관념과 불안을 여학우들의 무의식에 심어주는 충고를 가정한 말. 이상하게 주로 여성들에게만 이 과장한 징크스를 적용시킨다.

<주로 함께 쓰이는 말> 금값, 은값, 동값, 동값:

대학 1,2,3,4학년 여성을 상등으로 평가하여 값을 매기는 지극히 자본주의적인 체제를 반영한 말로써, 더 값이 떨어지기 전에 얼른 한 눈 잡아라 졸업 전에 너도 연애 한번 해보지...하는 축운한 시선이 동반됨.

4. 진짜 남자는 여자친구의 순결을 지키고 보호해야 한다.

자신은 여친에게 sex를 강요, 요구하지 않는 '진짜 씨나 이'라는 무한한 긍지와 자부심을 갖게 하는 말. 하지만 내연에는 '얼른 결혼해서 내 것이 될 때까지만 참자'는 심리가 숨어있으므로 '아... 참 착하고 나를 위하는 사람이야...'라고 쉽게 감격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5. 남자는 성욕이 강해서 참을 수 없다. 따라서 여자도 정말 사랑한다면 허락해야 한다.

'사랑'이라는 모호하고 불분명한 이름으로 그 여성을 둘러싼 수많은 고민과 불안을 덮어버리려는 무시무시한 말. 단지 '내키지 않아서', '하기 싫어서' sex를 하지 않는 여성에게 '사랑하지 않는다'는 비난의 화살을 던질 수 있게 될미를 제공하는 말이다. sex란 상호 합의에 의해서가 아니

라 여성의 '허락'과 '몸을 중'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묘사하여, 겉으로는 칼자루를 여성이 쥐고 있는 듯이 보이게 하는 말이기도 하다.



6. 남자가 못생기고 여자가 이쁘면 남자가 능력 있는 것이다.

여자는 일단 예쁘기만 하면 다른 능력이 떨어져도 남자가 칭고 데리고 다닐 만하다는 이상한 가치 기준. 여자를 돈만 보는 속물로 여기는 사고가 저변에 깔려 있음.

<유사한 말> 남자가 잘 생기고 여자가 못생기면 남자가 여자를 정말 사랑하는 것이다.

: 사람을 평가할 때 '여자는 외모, 남자는 성격'으로 평가하는 너무도 '동통성 있는' 사고 방식을 반영한 말이다.

7. 남자는 옛사랑을 쉽게 잊지 못한다. 여자는 새로운 사랑을 쉽게 시작한다.

일부 현재의 사랑에 충실하지 못한 남성들이, 자신이 '마음을 다 주지 못'하는 이유를 첫사랑의 상처로 돌리며 현재의 그녀에게 불성실함을 합리화할 때 자주 쓰이는 말이다. 자신의 지고지순했던 마음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남기고 간 상처가 한 편의 드라마가 되어 아주 자주 리플레이 된다. (때론, '새로운 그녀'의 동정과 눈물을 자극하는데 한 몫 하기도 한다. 그렇게 또다른 사랑이 시작되고...)

<숨은 뜻>:

맘 속 깊은 곳에 첫사랑을 묻어두고 오래오래 추억하는 남자와 달리, 여자는 지나간 사랑을 쉽게 잊고 정리하여 언제든 깔끔하게 새로운 연애를 시작할 수 있다는 과대평가(?)가 그 이면에 숨어 있다. '여성은 감정적, 감상적이다'는 그 막대한 연구 결과들이 이 때만은 어디로 가고, 여성이 '차갑고 이성적이고 냉철한 판단력'을 지닌 것으로 그려진다.

2) 연애에 들어가기 전...

1. 이상형 이야기 그의 이상형, 그녀의 이상형

이상형이란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형태나 모습'을 뜻하는 단어이지. 그러니까 연애에서 이상형이란 거는 연애를 하기에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대상의 모습이라는 얘기가 돼. 연애를 해봤건 안 해봤건 연애 중이건 아니건 다들 자신의 이상형에 대해서 한번쯤은 생각해봤겠지? 아니 한번쯤이 뭐야. 우리는 끊임없이 이상형의 조건들에 대해서 생각하고 이야기해.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과 연애하고 싶어. 나는 저러저러한 사람과는 연애할 수 없어. 너는 이러저러한 사람이 좋니? 개는 어떻게 저러저러한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 등등등...

근데 이상형이라는 게 개인의 순수한 자유의지로 생겨나는 게 절대 네버 아니지. 우리 사회의 이상형 공식도 함 봐바.

- + 여자의 이상형 : 돈 많고 학벌 좋은 '남자'
- + 남자의 이상형 : 예쁘고 착한 '여자'

책 보면 뭐 느껴지지 않아? 우리 사회 안의 남녀간의 권력관계와 섹슈얼리티의 구조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잖아. 경제권이 남자에게 있는 상황에서 여자는 남자를 통해서 경제력을 획득해야 하지. 그리고 남자는 여성에게 경제력을 보장해주는 대신 감정·친밀감 서비스를 제공받아. 참, 여자의 이상형은 남자, 남자의 이상형은 여자라는 것쯤은 기본이야. 우리 나라에서 이상애자가 아니면 칼 맞으니까.

물론 이 글을 쓰는 나나 이 글을 읽는 데의 이상형은 이 공식에 꼭 들어맞지는 않을 거야. 아마도 우리 주위의 친구들에게 이상형을 물어보면 남녀 구분 없이 우선 외모에 대한 얘기가 나올 테지. 연애인 누구의 얼굴, 누구의 몸매가 자신의 이상형인지는 대충 생각하고 있을 거야. 그건 우리가 아직 '학생'이라서 그래. 아직 사회 속에 완전히 편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모의 경제력에 당연하다는 듯이 의존할 수 있는 처지인 거지. 배가 부르면 그 다음에는 아름다운이고 예술이고를 따지게 되지 않겠어. 게다가 현대는 비주얼의 시대고 외모가 개인의 주요 자산으로 부각되는 시대라구. 또 교육에서의 여권 신장, 사회 분위기 변화도 한 영향 미쳤겠지. 예전처럼 연애한다고 결혼하는 시대도 아니고 말야. 그래서 요즘은 남자애들뿐 아니라 여자애들도 상대방 외모 엄청 따져. 또 외모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성격이지. 연애란 가장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게 하는 인간관계 중의 하나인데 서로 죽이 맞아야 사귀는지 말든지 할 거 아냐. 이렇게 외모와 성격은 우리의 이상형을 만드는 양대산맥인 셈이지.

이상형이란 것은 말 그대로 '이상' 형에 불과한지도 몰라.
하지만 우리가 가진 이상형의 정형, 우리 사회에서의 이상형의 공식이
우리 자신에게 주는 영향을 생각해봐.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이상형을 찾는 데서 그치지 않고
스스로가 연애 시장에서 잘 팔리는 이상형이 되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지.

하지만 우리의 이상형이 위의 공식을 완전히 펼쳐버리고 있는 것도 아니지. 제각기 자신의 이상형에 대해 주저리주저리 떠들어대도 사실 이상형이란 게 다 거기서 거기거든. 약간의 디테일의 차이만 있을 뿐 결국 우리의 이상형은 '여성다움', '남성다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 보이쉬한 여자를 좋아할 수는 있지만 진짜 남자로 보이는 정도까지 되어서는 안 돼. 사근사근한 남자를 좋아할 수는 있지만 제집에처럼 앵앵대는 안 돼. 또 아무래도 여자는 남자의 외모보다 성격을, 남자는 여자의 성격보다 외모를 훨씬 더 따지지. 여자는 곧 죽어도 외모라는 별소리가 괜히 존재하는 게 아니잖아. (이 글을 쓰다 문득 TV를 보니 미스 코리아 대회를 하고 있군. 왜들 그리 여자 얼굴에 눈 별걸째 뜨고 관심을 가지는거야? 미스터 코리아 대회는 하긴 하는거야?) 남자는 얼굴이 썩 팔려도 성격(or 정성 or 물량공세)으로 커버하기가 더 쉽지.

그리고 그 기준에서 탈피한 경우에는 특이한 취향을 가진 사람으로 취급받아. 철이 덜 들었다거나, 세상을 너무 모른다거나, 영화·만화를 너무 많이 봤다거나, 유아기에 겪은 충격적인 사건이 무의식에 남아있거나, 성적정체성을 헷갈려한다거나 등등이 그 원인으로 제시되곤. (나는 열게 화장하고 이쁘게 차려입은 초절정 미소년/미소녀를 연애의 이상형으로 삼고 있는데 말이지... 이런 인간을 찾기 힘든 건 둘째 치고라도... 주위 사람들이 날 별난 년으로 보더군... -_-;;)

이상형이란 것은 말 그대로 '이상' 형에 불과한지도 몰라. 자신의 이상형과 딱 들어맞는 사람과 연애하는 경우는 드물지. 하지만 우리가 가진 이상형의 정형, 우리 사회에서의 이상형의 공식이 우리 자신에게 주는 영향을 생각해봐.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이상형을 찾는 데서 그치지 않고 스스로가 연애 시장에서 잘 팔리는 이상형이 되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지. 연애가 넘쳐나는 시대, 연애가 강요되는 세상에서 연애의 양과 질은 곧 그 사람의 능력을 보여주는 표상이라는 거 굳이 강조 안 해도 알지? 이미 서로 규칙을 알고 있기 때문에 결과는 변하지. 여자다운 여자, 남자다운 남자가 되는 거야. 그럴수록 우리가 연애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돼. 진부한 세상에서 진부한 이상형이 되어 진부한 이상형을 만나 진부한 연애를 하는 거지. 우우, 재미없어라...

\\ 98 빌빌

2) 연애에 들어가기 전...

2. 소개팅 이야기 꽃단장에서 편안함으로

알집사는 언니가 어쨌든 숨쉴로 봐준 나의 사주에 의하면 나는 22살에 운명의 남자를 만난다고 한다. 내가 3학년이긴 하지만 생일이 빨라서 며칠 전이야 겨우 성년의 날을 맞이했으니 아직 시간은 충분히 남아있는 셈이다. 그래도 기회는 준비하는 사람에게 찾아오는 법! 연애 못하는 나를 가련히 여기어 여기저기서 소개팅을 주선 해줄 때마다 나는 보다 업그레이드 된 전략을 가지고 소개팅에 임한다.

처음에 내가 구사한 전략은 '여성스러움' 이었다. 일단 머리를 풀어헤치고, 여성스럽게 그치 없는 에이 라인 스커트를 입고 얼굴도 보사시하게 화장을 한다. 립스틱을 바르고 마지막으로 하이힐을 신으면 웬지 자신이 어른스럽게 느껴져서 멋모르고 기분이 업되던 풋풋한 새내기시절이 었그제이다. 멋있게 보일려고 일부러 경찰대 재복을 입고 나오는 귀여운 새내기 남자상대도 있긴 했지만 남자애들은 대개 평소 입던 후드티 걸치고 나오는데 차림새랑은 상관없이 서로가 남자 혹은 여자라는 전형적인 역할모델에 충실한 일종의 퍼포먼스를 하기 마련이었다. 나야 돈도 별로 안 들고 이것저것 배려해주니 좋긴하지만 한편으로는 어디로 갈지 결정하거나 혹은 대화를 할 때 내가 소극적이 되고 비주체적이게 되는 한계를 느끼는 적이 적지 않아서 나는 차츰 소개팅에 흥미를 잃어갔다.

그러나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다!

나는 소개팅을 재미있고 보다 유쾌한 자리로 만들기 위해 조금씩 전략을 수정해갔다. 나의 수많은 소개팅 경력에서 나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나는 일단 여성스러움이라는 기본 컨셉 외에 청순, 우아, 지적임 등

의 다양한 전략을 구사했다. 우리한테 만나보고 괜찮으면 연애할래요? 라는 전제하에 만나는 자리인 만큼 상대에게 내가 얼마나 이성으로서 매력적인가를 강조하려면 여성스러움이라는 컨셉은 포기할 수 없지만 거기에 나의 욕구와 필요를 감안하여 약간의 변화를 주는 거다. 기분이 유쾌한 날은 면바지에 운동화를 신고 가기도 하고 내가 먼저 화제를 꺼내고 이야기를 주도해 나가는 것은 물론 갖갈 계산서정도는 당연한 듯 내가 덤뻑 집어들었다. 이런 때 의외로 수줍어하거나 당황하는 남자애들도 있는데 그런 남자애들이 편하게 적당한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요령까지 터득했다. 그렇게 하는 게 일단 내가 만족스러워서 좋았는데 약간의 어색함만 가시고 나면 남자애들도 꽤 만족해 했다.

요즈음 내가 즐겨 구사하는 전략은 '있는 그대로'다. 여성스러움이라는 기본 컨셉만큼은 안 바뀔 줄 알았는데 이젠 그것으로부터도 자유롭다. 나는 바야흐로 소개팅의 초월의 경지까지 이른 것이다! 특별히 여성스럽게 차려입거나 행동하려고 의식하지도 않고 여성스럽지 않으면 어쩔나하는 일말의 조바심도 없어졌다. 그럴 때는 남자애들 역시 남성스럽게 보이려고 애쓰지 않게 되니 그 편이 서로가 편하다. 소개팅 자리에선 모르는 사람에게 오히려 속내를 더 잘 드러내게 되기도 하는데 남자애들이 남자다워야 한다는 강박관념으로부터 자유

썬 더 편찮은 녀석이라는 걸 알는 경우도 종종 있다. 그렇게 서편하고 자연스러운 자리가 가장 좋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이젠 꽃단장하기도 귀찮다!!

\\ 99 귀찮아



2) 연애에 들어가기 전...

3. 대쉬를 둘러싼 이야기 '감정의 교차로'에선 누구라도 그 무엇이 될 수 있다!

"열 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이제 이젠 너무 익숙한 표현인가?
열 번이나 찍어보는(?) 나무꾼은 누구이며, 열 번이나 찍히는(?) 나무는 누구인
가!

우리는 얼마나 오랫동안 그리고 일상적으로 흔히 말하는 연애의 시작을 이 '나
무꾼'과 '나무'의 모델에서 찾아왔는가!

그리고 그 정형화된 모델에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나무꾼' 남자와 '나무' 여
자를 보아왔는가!

.....상황 I.....

남자는 여자를 죽어라 쫓아다닌다.
같은 공간에서 활동하는 경우 그가 그녀에게 접근하는 것은 더욱 쉽다.
온갖 선물 공세와 사랑 고백으로 여자를 감동시킨다.
주위 사람들은 그런 그와 그녀 사이에서 열심히 바람을 잡아준다.
'짜식, 좀만 더 버티면 넘어올 것 같다 아~ 힘내라' 라고 하면서...
그녀는 그의 마음을 아는 듯, 모르는 듯 예의상 몇 번 튕긴다.
(혹은 그녀가 실제로 그에게 어떤 감정을 가졌느냐와 상관없이 그에게는 그냥 몇
번 튕기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그렇지만 결국 못이기는 척하며 그의 열정적인 대쉬를 받아들이고...
결국 연애라는 것을 시작하고 만다.

.....상황 II.....

여자가 자기 맘에 드는 남자를 유심히 관찰한다.
그가 눈치채지 않을 만큼의 호의를 보인다.
(아니다, 이미 그는 벌써 눈치를 챘을 수도 있다! 다만 모르는 척 하는
것 뿐...)
그에게 그를 좋아한다고 혹은 사랑한다고 고백한다.
주위 사람들 의외로 적극적인 그녀의 대쉬에 당황한다.
'넌 자존심도 없니, 왜 네가 먼저 얘기해?', '너 참 이상한 애다.
넌 상대방이 어떤지도 모르는데 그렇게 먼저 얘기할 용기가 나
냐?' 라고 하면서...
임든 다른 이들에게 '알 뒤 안 재는' 그녀이지만, 우여곡절 끝에



그와 연애라는 것을 시작하게 된다.

'누군가와 사귀다'는 개념이 없었던 대학 초년
생 때는 가까이 지내던 선배오빠와 상황1에 가까운
형태로 연애를 시작한 경험이 있다. 물론 그 당시
에도 내게는 여자의 NO가 YES가 되게 하는 그런
'핑김' 같은 건 없었다. 왜 그리 재미있게 연애를
시작했냐고 내게 면박을 주는 사람이 있다해도 어
쩔 수 없다. 난 좋은 건 좋은 거고, 싫은 건 싫은 거
니까. 첫사랑이 끝나고 그 이후에도 여러 사람들을
좋아하는 동안에도 나의 태도 없음은 여전했다. 사
랑을 고백하고 나서 쓴 고백의 술잔을 기울인 적도
몇 번 있기는 하지만, 후회는 되지 않는다. 그만큼
미련이 남지 않으니까. 얼마 전부터 시작한 나의
두 번째 연애의 경우는 두 번째 상황에 가깝다. 상
대방에 대해서 호감이라는 것이 발동했을 때, 난
어떤 식으로든지 내 맘을 표현해야 했다. 그런 내
감정에 어떤 이름이 붙여지던지 간에 난 - 가령
'사랑'이라는 - 내 자신의 감정대로 움직이길 원
한다. 그에게 느껴지는 묘한 매력을 그냥 지나칠
수 없었기 때문에.

사실 난 '자, 지금부터 연애야'라는 식의 인위적
인 출발점과 함께 하는 '대쉬'라는 개념을 별로 좋
아하지 않는다. 그저 '그래서, 니가 먼저 대쉬했
어?'라고 사람들이 내게 물을 때 어쩔 수 없이 '응'
이라고 대답하는 것일 뿐. 사람사이의 관계는 그렇
게 "A가 B에게 대쉬한다. B가 A에게 넘어 온다. A
와 B가 연애하게 된다."식으로 간단하게 끝나지 않
기 때문이다. 서로의 감정을 살피는 일에서부터 시
작해서 은근슬쩍 맘과 몸을 나누게 되는 것에 이르
기까지 그 안에서 우리는 너무나 복잡하고 다양한
감정의 스펙트럼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리
고 난 단지 그 감정의 스펙트럼 속에서 내 자신에게
솔직하고 싶었던 것뿐이다. 그러나 세상은 사람들
이 그 감정의 스펙트럼에 젖어있도록 가만히 놔두
지 않는다. 자신의 감정에 주체적으로 반응한다기
보다 이미 정해진 각본에 따라서 움직이기 쉽기 때
문이다.

'사랑해'라는 남자의 고백을 부끄러워하면서 받
아들이는 여자. 전람회의 '취중진담'이나 카니발의
'그녀를 잡아요!'라는 노래를 들으며 용기를 얻는

남자. 이 용기가 도를 지나쳐 '그냥 밀어붙이면 되
지' 식의 폭력적인 태도를 일관하며 '남자답다'는
말을 듣는 남자.

먼저 적극적으로 자신의 맘을 표현했다가 재수없
는(?) '스토커' 혹은 매력 없는 사람으로 찍히는 여
자. 조금 자신의 감정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반응했
다가 '용기없는 놈'으로 찍히는 남자.

물론 나 자신도 '취중진담'이나 '그녀를 잡아
요!'를 들으며 그런 남자의 사랑고백을 받는 여자
의 입장에 꼭 빠져들게 된다. 우리 주위에 존재하는
연애에 관한 많은 문화적 코드들이 '나무꾼'인 남
자와 '나무'인 여자를 계속적으로 생산하기 때문이
다. 그러나 현실에서 내가 실제로 느끼는 감정들
에는 '그를 잡아요!'나 여자가 하는 '취중진담'도 많
이 섞여 있다는 걸 잊지 않는다. 그리고 어떤 틀에
도 구애받지 않고 내가 지닌 소중한 감정들을 그와
나누고 싶다. 물론 우리 주위에 존재하는 마초적인
스토커 사례들처럼 상대의 의사를 완전히 무시한
채 이루어지는 폭력적인(?) 대쉬들이 존재하는 것도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다. 복잡한 감정의 스펙트럼
에서 우리는 서로를 배려하는 길 찾기를 해야 한다.
그리고 그 절묘한 감정의 교차로는 무조건 얼굴 붉
히며 내숭을 떠는 것으로도, '용기 없는 놈'보다는
'남자다운 놈'이 되겠다는 독심으로도 쉽게 찾지
지 않는다.

그렇다고 모든 여자가 사랑고백을 할 수 있을 만
큼 '뽀뽀해줘야' 한다거나, 이제 남자들은 여자의
고백을 받을 준비를 하라는 것이 아니다. 다만 이성
애를 기반으로 한 연애를 선택한 여자 건 남자 건
자신의 솔직한 감정을 주체적으로 표현 할 수 있었
으면 한다. 한 쪽은 '나무꾼'과 다른 한 쪽은 '나무'
의 역할을 하는 그런 틀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적
절한 배려와 솔직함이 있는 그런 틀 속에서 연애라
는 것을 시작할 수 있었으면 한다. 감정의 교차로에
서 누구라도 그 무엇이 될 수 있다. 사랑을 고백하
는 입장이 되든, 사랑을 고백 받는 입장이 되든, 혹
은 서로 동시에 사랑을 고백하는 입장이 되든, 중요
한 것은 흔히 말하는 '대쉬'의 틀에서 벗어나는 것.
자신과 상대방의 감정에 솔직해지는 것 일테지

// 97 나비

3) 연애가 시작된 후...

1. 연애 step 1, 2, 3

// 99 마니



3) 연애가 시작된 후...

2. 착한여자 콤플렉스 “착한 여자 되기” - 熱나게 손해나는 짓



이 글을 쓰기 위해 생각을 정리하면서, 그리고 이 글을 쓰기 시작하면서 난 새삼 느끼고 있다. 그와의 사이에서 있었던 일들에 대해 정리된 생각을 가지고 글을 쓰기에는 난 아직 너무나 혼란스러운 상태라고 말이다. 그러나 내가 그 연애에서 어떤 실수를 했는지를 되짚어 보고, 그리고 그 실수들을 다시는 반복하지 않기 위한 '연애 장애 제거 과정'으로서 이 글쓰기가 필요할 거라는 생각에 손가락에 힘을 쥐 본다.

나의 짧고도 길었던 일련의 연애 과정과 이별로 끝난 결말까지를 주절주절 늘어놓는 것은 이 글을 읽을 불특정 다수에게 남의 슬픈 연애 얘기에 대한 호기심을 충족시켜 줄 뿐 나에게는 어떤 도움도 되지 못할 것임을 안다. (이상하게도 듣는 사람 귀에는 잘되고 있는 연애보다 깨진 연애 얘기가 더 재미있다.) 그리고 그가 내게 어떤 상처를 주었고, 내가 얼마나 아팠는지에 대해서 하소연하는 것도 내겐 의미가 없다. 그를 흠집 내는 것은 내가 진정 하고 싶은 얘기가 아니라 다만 아직 그를 잊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에 투정을 부리는 것에 지나지 않으리라.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에게 어떤 잘못과 실수를 했었는지에 대해 얘기하려 하지도 않는다. 그것은 그가 이별선언을 한 순간부터 지속적으로 내 스스로에게 가했던 폭력들과 그것으로 인한 상처를 떠올리게 한다.

내가 말하려 하는 것은 나는 연애하는 동안 내 스스로에게 큰 실수를 저질렀다는 것이다.

나는 나의 연애를 하지 못했다. 다시 말하면, 나는 연애하는 동안 '내'가 아니었다.

연애하는 동안 나는 그 과정들에 내 의지를 개입시키지 못했다. 연애란 두 사람 간의 에너지를 잘 조율하는 것이 중요하니 만큼 내가 연애 과정을 주도했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연애가 시작되고 끝나는 일련의

과정들에서 내 의도가 반영된 것은 전혀 없었다. 단순히 둘이 만나서 무얼 먹느냐, 어디 가느냐 하는 일상적인 선택의 부분에서 일어나는 문제가 아니라 연애의 성립에서부터 결말까지의 총체적인 과정에서 난 그의 결정과 의지를 순순히 따랐고 내 의사를 표명하거나 상황을 내 의지대로 진행시켜보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 내 선택과 판단은 단지 그를 이해하고 배려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 내 자신의 자존심과 가치는 보호하려 하지 않았었다.

이 연애의 과정은 나에게서는 일종의 자학이었다. 나를 끊임없이 낮추고 나를 한계 짓기만 한 시간들이었다. 나는 둘 사이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의 책임은 대부분 나의 것으로 돌렸고, 나는 그의 사랑을 받기에는 너무도 부족한 사람인 것처럼 말하곤 했다. 나는 내가 그를 사랑한다는 것만으로도 그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 채, 나의 너그러움과 겸손함을 항상 강조하려 했었다.

언젠가 내가 그에게 물었던 적이 있다. “너 너무 착한 거 같아. 그렇지?” 라고, 그의 대답은 “남자 친구한테 안 착한 여자가 어디 있냐.”였다.

난 내가 가진 다른 장점을 이용해 그 관계에서 자신감을 얻으려 하지 않고 나의 배려와 희생, 너그러움을 강조하며 그를 감동시키려 했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이 나만이 할 수 있는 내가 가진 장점이 아니라 연애 관계에서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고 그럼으로써 나는 내 가치를 충분히 획득하지 못했다. 그리고 어리석게도 똑같은 실수를 헤어지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반복하였다.

무척 민망하긴 하지만 그가 헤어지자고 전하면 날 밤, 그에게 보냈던 편지 내용의 일부를 공개해본다.

난.. 오빠 보내줄 수 있을 만큼.. 오빠 사랑해..

-지금도 오빠 붙들고 싶은 마음 굴뚝 같아. 하지만 오빠를 보내는 것이 마지막으 로 내가 오빠에게 해 줄 수 있는 걸거야.. 내가 좀더 착한 00가 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할테고 말야..

난 그가 헤어지자고 했을 때 너무나 헤어지기 싫었다. 그렇지만, 나는 그의 이별 선언이 일방적임에도 불구하고 순순히 따랐고 나의 그러한 수동성이 '사랑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며 생색을 내고 말았다.

그리고 난 그에게 '착한 00'로 남길 원했다. 여차피 떠날 거라면 날 좋은 여자로 기억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그가 떠나가는 길을 축복해 주었다. 난 '이별을 원하지 않는다'고 당당하게



맞서지 못한 채 내 목구멍에서 터져 나오는 원망과 분노를 억누르고, 나 자신을 다독였다. 그의 기억에 남게 될 착하고 좋은 여자로서의 나의 '이미지 관리'를 위해..

헤어진 지 한 달쯤 지나서야 내가 너무나 바보같이 굴었음을, 결국 이 연애는 내가 그에게 이리저리 휘둘리다가 상처만 입고 끝나버린 것 이란 걸 깨달았다. 아니, 그는 나를 휘두르려 의도하지 않았다. 나 혼자서 스스로를 검열하고, 억압하고, 제도하면서 연애 중의 나를 지치

게 하고 연애 후의 나를 초라하게 만들어버린 것이다.

그를 욕하면서 나쁜 놈으로 몰아버리는 것이 아마 나의 정신건강에는 유익할지도 모른다. 이 연애의 끝을 아직은 아쉬워하는 나에게는, 이렇게 내 실수와 잘못을 되짚어 보는 것은 이 연애의 결말이 마치 나로 인한 것인 양 마음을 불편하게 만든다.

그러나, 그가 내게 어떤 상처를 주었던 간에 그를 미워하는 마음은 없다. 그를 미워하기에는 지금 내게 남아 있는 추억들이 너무나 달콤하기 때문이다. 내가 얻은 상처의 고통을 가지고 따지고 든다면 이기적이고 나쁜 놈에 불과할지 모르는 그가, 지난 추억에 잠기는 순간 '내게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 준 고마운 사람'으로 돌변해 버리는 것이다. 아직까지 그에게 착한 여자라고 남고 싶은 것이지.. 아니, 내가 이러는 것은 나의 선택 그리고 희생이 가치 없는 것으로 전락해버림을 두려워하기 때문인지 모른다. 사실, 나는 그것들이 무가치한 것이라는 것을 정말 잘 알고 있다. 그래서 나는 그 연애를 머리로 기억하고 싶지 않다.

나의 치명적인 결점과 장애를 극복하지 않고서 나는 '나의 연애', '내가 행복해지는 연애'를 할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만 또한 난 그 결점을 아직은 극복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 아직 새로운 연애를 시작하지 않았으니, 그러나 착한 여자라고 남기 위한 고통과 대가가 얼마나 큰 지를 경험한 이상, 이제 '착한 착' 하는 것이 얼마나 손해나는 짓인지를 깨달은 이상, 난 어느 누구에게도 착한 여자라고 남기를 꺼려하게 될 것이다.

//98 — 원타

3) 연애가 시작된 후...

3. 씨씨의 행로 캠퍼스 커플



일단은 캠퍼스 커플의 생활에서 피해보는 건 팔히 여학우일거라는 이유 있는 의심에서 한발짝만 비껴보자. 내 학번만 해도 몇 년간 다른 학번 포함해서 무수히 붙었다 깨졌다 이합집산의 반복인데 그 안에는 많은 다양성이 있다. 꼭 의심쩍은 마음만큼 실제 여자애가 늘상 남자애들의 인간관계 속으로 흡수되는 것도 아니고, 꼭 깨진다고 반에서 통거나가는 것도 아니다. 실제 캠퍼스 커플의 골치 아픈 문제들은 두 성 모두에게 실질적인 인간관계에서 나타나게 된다. 기본적인 문제는 이거다. 둘이 같은 공간에서 얹히고 실린 인간관계 안에 있다는 것과 둘이 '연애' 하게 되면 그 인간관계가 어떤 측면으로든지 간에 변하게 된다는 것.

연애...그게 뭘까? 사랑하는 "관계"? 나는 사랑이란 결국 나의 이성(혹은 동성...)에 대한 환상의 대상에 대한 투영이 아닐까라고 조금은 씨니컬한 견해를 갖고 있다. (음..... 나중에 내가 '사랑'이란걸 하고 있다고 생각될 때는 이 부분을 잊어주셔야 될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아마도 자신의 빈 공간에 대한 투영이기에 둘이 있을 때는 홀로 있을 때의 빈공간이 온전히 채워지는 것 같이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다. 하나임을 더 느낄수록 혹은 더 느끼고 싶다고 욕망할수록 현실적인 인간관계에서 멀어지는 것이 연애의 딜레마다. 현실의 관계망 속에서 이에 자유롭지 못한 연애라는 둘간의 인간관계는 또한 무수한 사회적 의미, 역할, 관계들의 조정을 경험해야 한다. 어떤 이에게 그 속에서 원하는 지점을 찾아가는 것은 지난한 싸움일 수도 있다. 서로가 서있을 자리에 대해 협상하는 이런 때에는 불행히도 막연한 부족분에 대한 환상이 증발해버린다. 그냥, 이러한 과정은 '합류적 사랑'으로의 길이

라고 얼버무려보자. 연애는, 그야말로 사랑과 현실사이에서 갈팡질팡하곤 한다.

캠퍼스 커플에게서 이런 관계의 문제는 매우 직접적으로 다가온다. 그냥 다같이 친했던 동기남자친구들이 멀어지면서 남자친구가 만날 약속을 하지 않는 이상 만나지 않게 되는 것이 내가 친구가 아닌 남자친구의 애인으로 관계가 재편되는 것이 아닐까하고 의심조사하고, 여자친구와 헤어지면서 여자친구와 친하던 여자후배들과 하루아침에 몽땅 등을 돌리게 되는 이러한 관계의 변화들이 바로 캠퍼스 커플을 피곤하게 하는 그것이다. 주변에서 깨지고 나서도 친구처럼 잘 지내는 캠퍼스 커플을 정말 못 봤는데, 한순간에 남남사이가 되더라도 같은 공간에서 지내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깨진 커플로서의 어정평함을 감내해야 하는 혹은 반 안에서 인간관계 좁은 하나가(불행히도 이런 대개 여자 쪽이기 마련이다.) 결국 통거나가 버리는 소리소문 없는 비극이 연출되기도 한다.



가정 마나.

「복잡한 뒤로 반에서 조금 멀어져 오티나 신입생 수련회에 갈까 말까 망설였다. 그렇지만 반에 남은 대부분이 여자애들이고 친하지 않더라도 편하게 말하고 지내는 사이니까 어색함은 참을 수 있고 무엇보다 뚜렷한 귀여운 남자 새내기들을 볼 생각을 하니 괜찮겠다 싶어 신입생과 하는 행사에 대부분 참여했다. 새내기 중에 얼굴 하얗고 얌전하게 생긴 남자애에게 마음이 끌렸다. 나는 대학 몇 년 더 다닌 노련함으로 조연과 친절함을 아끼지 않아 착하고 멋진 선배로 각인 되었고 밥과 술 몇 번 사주고 술에 알맞게 취한 그 애를 몇 번 집에 안전하게 데려다주고는 프로포즈를 했다. 그 애랑 사귀면서 자연스럽게 신입생들이 나를 알게 되고 나도 그들에게 좋은 선배가 되어주고 그렇게 학년을 극복하면서 다시 반에 섞이게 되었다...」



남자 후배에게 농담과 친절함을 아끼지 않다가 기어올라오는 후배에게 생긴 인짱음을 그냥 넘기고, 학년이 '상대적으로' 높아질수록 후배들에게 특히 여자후배들에게 선배가 되지 못하는, 그리고 휴학 한번만 조용히 하고 나면 자연스럽게 반에서 멀어지게 되는 걸 경험해본 여학우라면 가슴에 더와 닿을, 캠퍼스 커플이 되는 매우 흔한 남자선배-여자후배의 각본을 성만 뒤집어 보았다. 앞에도 봤듯 현실성은 별로 없다. 아마도 이 남자선배-여자후배 각본은 남자가 연하인 커플이 아직은 어색하고 여자친구를 만들지 못한 남자선배가 모임에 있는 한 가장 생명력 있는 캠퍼스 커플의 각본이 아닐까. 실제 뒤에서 남자가 농담 반으로 한마디 싫은

소리 들더라도 말이다. 이런저런 반이나 동아리에 서의 캠퍼스 커플의 각본들은 여자애들이 처음부터 더 많은 과인 경우에도 남자애들이 군대를 감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남자애들이 더 많이 남게되는 '과방'의 수상쩍은 남아선호의 문화와 상호 공존의 '구조'가 아닐까 하는 의심을 한 번 해보고 있는 중이다.

어느 정도는 남성중심적인 반이나 동아리의 분위기, 더 넓게는 전반적인 남성중심의 사회가 캠퍼스 커플의 각본을 남성 중심으로 짜왔다. 물론 이러한 관행화된 각본은 좀더 희미해지고 있지만, 그리고 두 개인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상황과 개인특성에 따라 무수한 다양성이 존재하며, 대화와 타협이라는 민주주의적 무기로 이것은 어느 정도 조정 가능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같은 곳에 적을 두고 그곳 사람들과 생활하면서 여기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캠퍼스 커플은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든다. 어떤 연애에서도 안 그러겠나만은 캠퍼스 커플은 같은 공간에서 남성과 대등한 위치와 '여성'의 위치 사이에서 진동하는 여학우들의 고민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

// 98 모모씨



4. 연애와 군대/여자와 담배에 관한 짧은 생각

군대

전날 속직하면 난 군대의 연애만큼이나 힘든 그 복잡하고 머리 아픈 과정이 생애에서도 어떤 군대만큼이나 힘들고 있다. 그렇지만 군대 가면서 너무나 쉽게 '너 기다려줘!' 라고 말하는 남자들은 '너 기다려줘! 막 러를게!' 라고 말하는 남자들이 아니라면 미칠까봐도 상관없다.

군대하기 비우고 있던 남친이 1년 동안 사귀고 헤어졌을 때, '남친이 군대하냐?' 라는 질문을 가장 많이 받았다. '군대하니까 미치거나 사귀는' 소릴 듣기도 했다. 군대하니까 연애의 지속과 끝맺음을 줄 수도 있지만 나에겐 아직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다.

남자를 사귀게 되니 의문이지만 이미 애인이 군대 가면 편지는 안 올 것 같다. 내가 군대만 동기, 연애하는 데 편지 안 쓰기로 웬만하면 그 정도 편지 전박 안지 않고 가끔 전화해 주는 동기들이 고마울 뿐.

언제인가, '너 때문에까지 군대 안 가는 거 아니냐?' 하는 말을 들었을 때 가슴 뻘뻘했다. 하지만 만약에 또 누군가가 나에게도 그런다면.....??? 군대하기 싫어지기를 바랄 뿐.

담배

나보다 훨씬 더 많은 남친이 나에게 담배 끊으라고 계속 조곤대는 애들 누군가에게 했더니 '너 정말 좋아하냐' 담배 편한 너 담배라 비교해봐. 누가 너 진정으로 원하는지 뻔히 보이지 않아. '너는 소라 죽었다. 기린의 몸은 계속 반치해두면서도 여전히 구애받지 않는 너의 사랑을 위해, 미래의 아이를 위해 끊어라. 그러나 나는 습관이라 어쩔 수 없다' 라는 이유면으로는 식미되지 않는다.



내가 '담배 피우냐?' 라고 묻지 않고 자기 너는 피우냐? 물어보는 친구를 미소로 한 대 뽐내주는 사람이 내 앞에 있다면 끊었던 담배 다시 피우고 싶겠다.

간장 새까맣게 먹어대는 사람이지만 가끔 느끼는 담배 연기 보면 한모금 피우고 싶기도 하다. 그렇게 담배로 찾아드는 맘에 속직할 수 있다면 내 담배도 내게 필요하겠지.

'간이진 여자'와 '담배한 여자'를 앞뒤로 걸어서. 난 담배 피울 때의 느낌이 책을 펴야. 뭐라고 하니 좀 바. 그리고, 담배 좀 좋아. 음?

3) 연애가 시작된 후...

5. 섹스

섹스, 이왕 하는 거 잘해보자



사랑=연애=섹스... 과연?

연애는 사랑 그 자체가 아니다. 사랑은 자연 발생적인 어떤 감정을 가리키는 것이지만 연애란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그리고 세대로 이미 구성되어 있는 어떤 규칙을 계약들 안에서의 물물교환 게임과도 같은 것이다.

당신은 나의 애인이니 내가 원할 때는 언제나 달려와 주어야 하고, 둘간의 약속은 다른 어떤 관계에서의 약속보다 우선 하며, 나의 생일이나 나의 대소사를 가장 가까이서 챙겨주어야 하고, 공개적으로도 나와 가장 가까운 관계라는 것을 공표해야 하며, 따라서 다른 이와는 이중 계약을 불허하고...

연애를 하는 스스로를 잘 관찰해보면, 자기 안팎의 이중적인 만족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선 일차적인 만족은 물론 실제로 둘간에 이루어지는 때를 감정의 교류들이겠지. 하지만 그 못지 않게 중요한 만족의 관점은 우리가 이 사회가 인정하는 정상적인 연애 관계에 있다는 것에 대한 확인, 그리고 그에 따른 안심이다. 사람들이 우리를 각각 여성과 남성으로서의 자질에 문제가 없는 두 사람으로, 그리고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행복한 커플로 보아주는 데에서

오는 만족감. 이런 외부의 시선은 둘만의 자리에서도 언제나 중요한데, 섹스에 있어서도 예외가 아니다.

여자의 벽 터지는 섹스

우리는 남녀간의 성공적이고 아름다운 섹스에 대한 일종의 정답을 가지고 있다. 물론 복잡적이다. 남성은 포르노적인 그리고 매춘과도 닿아 있는 일종의 남성성을 확인하는 쾌락으로서의 섹스에 대한 기대, 그러나 자신의 사랑하는 사람과는 그런 섹스가 아니어야 한다는 이중의 강박을 가지고 있다. 여성은 둘이 합의해서 갖게 된 잠자리에서 마치 순결 이데올로기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데, 이를테면 이런 식이다. '어느 정도 호응하고 얼마나 알고 있어야 하고, 어느 정도 즐거워야 하나.' 여자들은 성에는 무관심해야하지만, 요 구에는 응해야 하고, 또 상대가 만족할 정도로 호응하는 기술은 알고 있어야 하는 아주 어려운 줄타기를 해야 한다. 그러니까 자기 쾌락의 급소를 찾기 위해 자기 몸에 온 신경을 집중해야 할 시점에서 여자는 한발 떨어진 거리에서 그 정사를 찍고 있는 카메라맨의 시선으로 머리를 때구름~굴리며, 신음 소리 하나, 행동 하나, 대사 하나를 고르느라 골머리를 썩이고 있기가



상대적이고 절대적인 연애 대백과사전

심상인 것이다. 이런 비극이... 하지만 난 익숙한 장면이다. 키스를 하는 상대방의 어깨 너머로 '이 사태를 어쩌나, 이래로 놔두면 어디까지 갈 것인가? 누가 쳐다보지는 않나.'를 걱정하며 전혀 예로틱하지 않은 말쑥한 표정으로 있는 나의 모습. 이래 본적 있나?

섹스라는 영역.

자신의 성욕을 어떻게 비성(非性)적이고 세련되게 편집, 검열하고 포장해서 상대방에게 보여줄 것인가... 어쩌면 우리들은 소름끼치도록 그 지켜야 할 선과 물을 잘 알고 있다. 허용치 이상의 성욕을 적극적으로 드러냈다가는 단번에 남자 같은 여자 혹은 레즈비언으로 찍히고 말테니까.

섹스를 가식적이고 즐겁지 않은 것으로 만드는 것은 이 뿐만 아니다. 임신에 대한 엄청난 공포와 강박이 있어도 여자들은 표현을 못한다. 피임은 그야말로 '불확실한 통제'와 '정자'라는 세포와의 싸움인데, 둘이 머리를 맞대고 토론을 해도 모자랄 판에, 애기조차 못꺼내고 혼자서 끙끙 앓는다. 섹스에 관한 한 여자들은 미달이 못지 않은 '헛똑똑이'들이다. '섹스'와 '피임'이라는 말은 '사랑'과 '수술'이라는 말의 거리만큼이나 멀다. 낭만적인 언어만이 허용된 잠자리의 한 절정에서 '콘돔, 위생, 질외사정' 등의 단어를 사용해서 상대방에게 뭔가를 요구하는 말은 아무래도 용기를 낼 수 없는 분위기를 깨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죽을 만큼 불안하지만 절대 말하지 않는다. 부부가 궁합을 맞추는 게 2~3년이 걸리는 것은 이렇게 섹스에 대해 입막을 해놓고, 철저히 바다 뱀과 같이 감으로만 소통하면서, 우연이라는 희박한 확률 안에서 원하는 것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소요되는 시간들이며, 정말 해프닝이 아닐 수 없다. 싫어도 싫다고 말하지 못하고 걸



국 그냥 불감증이라는 속편한 이름으로 잠자리를 거부하는 이 시대의 아줌마들도 그 희생양이다.

섹스!라고 상대방의 눈을 바라보며 당당하게 발음할 수 있어?

섹스는 현실이다. 각자의 신체와 습관과 제한된 정보력이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장이다. 연극(비자이나 모놀로)에서 입막을 당한 '보지'와 '보지에 관한 말'들의 해방구를 마련하자고 주장하는 것처럼 우리도 섹스에 대해 '좋았어?', '응', '사랑해' 이상의 말을 꺼낼 수 있는 훈련을 해야만 한다. 콘돔을 사용하러가나, 하기 싫다고 말하거나, 어떤 것을 요구하는 말들이 섹스를 방해하는 이물질 같은 존재가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두 사람 모두가 행복한 섹스에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껴야 한다. 마치 가사분담에 대한 얘기를 하듯이, 점심 메뉴를 고르듯이 편하게 자기 검열 없이 의의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성에 대해 탐구하고 적극적으로 즐길 수 있는 마인드도 중요하다. 좀더 모험적이고 실험적이고 솔직하면 금상첨화겠지. 리드 당하는 것, 수동적인 섹스가 재미있을 리 없다. 상대를 사랑하기 전에 자기 몸에 먼저 집중하고 애정을 쏟을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나의 욕구들을 추적하고 찾아내는 거다.

애인과의 섹스는 사랑하는 사람과의 또 하나의 중요한 소통 수단이요, 함께 하는 아름다운 놀이라고 생각하는가? 그럼 좋다. 오늘부터라도 그동안 머리 속에 쌓아두었던 불만과 욕구와 요구와 감성들에 대해 말하기를 시도해 보라. 일년 걸릴 일을 단 삼일로 앞당길 수 있을 것이다. 배려해 주고 싶어도 방법을 모르는 상대방에게 중요한 정보가 될 것이다. 겉으로는 연극하고 속으로는 끝머리 짜내는 안 팽기는 섹스에 종결점을 찍게 될 것이다. 섹스가 현실적으로도 상징적으로도 상대방의 구석구석까지 배려하고 사랑하는 그런 일이 될 것이다.

//여성주의로 숨쉬는 마을 '언니네' 기획팀장 ____ 이다
www.unninet.co.kr

3. 여성주의자로서의

... 나는.....



나의 연애는 끊임없는 혼란이었다. 끝이 없는 파종이었다. 계속되는 자괴감이었다. 그리고, 지금 생각하건대 나를 갉아먹으면서 동시에 나를 성숙시킨 과정이었다.

연애 초반에 미칠 듯이 열광했던 기간을 지나고 나서부터 나는 끊임없이 혼란스러웠다.

내가 이렇게 누군가를 좋아해도 편찮은 걸까, 누군가를 좋아한다는 사실로 이렇게 혼란에도 편찮은 걸까, 나/를/대/로 여성주의에 대해 많이 생각하고 여성주의자로서 살고 싶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 주제에, 이렇게 '남자'에게 휘둘러도 되는 걸까, 가부장제 하에서 남성의 부속물 정도로만 여겨지고 있는 여성의 위치와 상황에 대해 분노한다고 말하고 있으면서도 지금 나 역시 똑같이 행동하고 있지 않은가, 그것도 자발적으로 말이다. 나의 '좋아한다'는 감정은 나로 하여금 이런 행동을 하게 만들 정도로 대단한 것이었던가? 그를 배려한다고 생각하고 취했던 나의 모든 행동들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사회에서 남성과 여성이 행하는 모든 행동들과 한치도 다르지 않게 보여질 것이었다. ... 나는... 혼란스러웠다.

나의 감정을 스스로 확실하지 못하게 되면서부터 나는 끝이 보이지 않는 파종을 부러대기 시작했다.

그의 잘못도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나의 잘못도 아닌 것 같은 문제들이 생겨날 때마다 나는 스스로를 위안하기에 바빴다. 나의 생각들이, 나의 행동들이 내가 가부장제 사회에서 자라났음을 아쉽게 보여주고 있었을 때, 그의 무심함이, 그의 배려없음이 그도 어쩔 수 없는 '남자'라는 생각이 들게 만들었을 때 나는 간사한 변명으로 나를 달래려 했었다. 하지만 원하지 않았던 상황들은 계속해서 내 주위를 맴돌고 있었고 결국 자기 위안으로도, 간사한 변명으로도 내가 '여자'라는 것과 그가 '남자'라는 것은 바뀌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일방적인 지식으로, 서로의 노력으로 다른 관계를 만들어 나갈 수도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했던 알뜰한 가내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 나는... 파종내고 있었다.

내가 '연애'를 하고 있다'고 감속히 인지하게 되면서부터 나는 자괴감에 시달리기 시작했다.

그에 대해 내가 하고 있는 모든 행동들이 마음에 안들기

시작했다. 그외의 감정놀음에 빠져서 내가 해야 할 모든 일들을 내버려두고 있다는 것을 나는 공박하도록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그의 한 마디에 내가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것을 무섭도록 확실하게 알고 있었다.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행동하는 것은 사람을 미치도록 괴롭게 만든다. 그의 생각을 앞서서 짐작하고 나를 맞춰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건, 내가 그에게 의존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생각을 하면서 두려워하는 건 그만큼 나를 밀어내려고 있었다. 나만 이렇게 연애에 미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은 주변인들과 나를 끊임없이 비교하게 만들었고, 결국 한없이 작아진 나를 발견할 뿐이었다. ... 나는... 자괴감에 시달리고 있었다.



나는... 나를 갉아먹고 있었다. 조금씩 조금씩 그리고 천천히, 하지만 끊임없이.

아금아금 나를 갉아먹고 있는 내 생각과 감정에 미칠 것 같은 나날들이 계속되었다. 억울하기까지 했다. '관계'를 조율하는 것만으로도 힘든 일인데 나는 다른 것까지 생각해야만 했다. 내가 여성주의를 모르고 있다면 이렇게 괴로워하지는 않을텐데 원망하기까지 했다. 나는 어렸고, 내 감정을 조율할 줄 몰랐고, 그를 미치도록 좋아하고 있었다. 이런 불균형이

오래 지속될 리가 없었다. 나는 폭발했고, 그는 지쳐갔다. 아마도... 나는... 그에게 말하는 방법은 몰랐던 것 같다.

벌써 몇 년이나 전의 이야기이다. 나는 이제 나이를 먹었고, 내 감정을 보일 곳과 보이지 않을 곳을 구별할 줄 안다. 그리고, 누군가를 미치도록 좋아하는 일은 이제 하지 않겠다. 라고 다짐했다. 아니, 누군가를 미치도록 좋아하려도 이제는 이전과 같은 실수는 하지 않으리라 결심했다. 나는 이제 큰 기대를 하지 않는다. 나는 내가 여성주의자라는 사실을 인정한다. 나는 누군가와 관계를 조율하는 것에 나의 생각과 행동을 억누르는 것은 결코 도움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래서 이른 연애를 끝낸 후에, 나는 담담하게 말했다.

... 나는... 연애를 하면서 참 많이 성숙해진 것 같다.
.. 완생 ____ 담다디

1. 연애무경험자 vs 연애경험자 단짝 친구 상담해주기

얼마전 오래만에 통화한 나의 단짝 친구는 대학4학년이 되도록 연애를 한번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해 또다시 우울해하고 있었다.

“... 이제는 나로도 만족한다더니.”

“... 여자친구와의 관계는 아무래도 한계가 있는 것 같아. 먼가가 허전해.”

답답한 고등생활 3년 내내 마음을 열고 힘이 되어준 사이였고, 특히 대학에 들어와 연애상담을 포함한 일상적 고민으로 사이가 돈독해진 그애와 나였는데... 두어 번의 연애경험으로 연애를 통한 남자와의 소통에 회의적이 된 나 & 친밀한 관계에 익숙지 않아 감정이 엇갈리는 만만찮은 가지다가 서투른 짝사랑 두번과 어설픈 친구남자(male-friend) 두기 세번에 지쳐버린 그 친구... 대학생활에서 둘 모두에게 중대사로 여겨졌던 연애가 이제 깨나 나의 마음 안에서 그 중심적 위치를 잃어버리자, 그 자리에 서로에 대한 우정이 들어앉았었다. 그런데 갑자기 웬 섬섬한 소리?

얘기를 들어보니, 하루도 거르지 않고 이른 모양의 문자메세지까지 보내주는 이 친구는 다른 때보다 답이 뜬내게 섬섬함을 느꼈고, 이러한 불만이 이성연애에 대한 신념을 다시 불붙여주고 싶은 마음을 그 친구에게 불어넣었나 싶다. 원래 내가 자기처럼 잦은 연락으로 우정을 표현하는 타입이 아닌 것을 잘 알고 있는 친구지만 말이다.

최근 들어 유난히, “자기야~사랑해”, “너 같은 애인 있으면 좋겠다.”

하며 그 친구가 나에게 간지럽게 얘기해주는 말들이 더 이상 순전히 가벼운 농담으로만 들리지 않았는데, 정말 ‘설렘’, ‘스킨십’, ‘결혼에 대한 상상(가족)’ 등 세가지를 빼면 ‘이 친구에게 난 적어도 어느 애인 못지 않은 특별하고 필요한 존재로 자리 매김이 되어가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드니,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 친구가 안쓰럽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했다.

‘연애에 대한 환상’을 한껏 풀 벗고 적당한 거리를 두게 된 친구가 이번 일로 ‘동성관계는 본질적으로 한계가 있다.’라는 미신에 휩싸여, 인간관계 중 친구관계에서 얻을 수 있는 부분을 한정시키는 대신 연애에 모든 걸 걸고 얹어놓지는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엄습했기 때문이다.

근데,

“사실, 내가 대학생활이 끝나가는 이 시간까지 4년 동안 연애경험을 한번도 못해본 게 너무 아쉬운 거 있지. 얼마 전 후배 연애상담을 해주는 데...”

로 시작되는 얘기에 귀 기울여보니, 친구를 연애에 대한 고민에 묶어두는 새롭게 부상한 이유가

연애문제로 고민하던 후배에게 상담해주면서, 남자친구와의 문제를 ‘연애를 안 해본 만큼’ 객관적이고 이성적인 입장에서 조언해준다 해도 자신의 충고대로 해서 친구가 실제로 겪게 되는 문제들을 이해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데는 ‘무경험자로서 한계’가 분명 있어 연애경험의 필요성이 절실하게 느껴졌다 한다.



파로 있었던 게다.

최근 연애문제로 고민하던 후배에게 상담 해주면서, 남자친구와의 문제를 ‘연애를 안 해본 만큼’ 객관적이고 이성적인 입장에서 조언해준다 해도 자신의 충고대로 해서 친구가 실제로 겪게 되는 문제들을 이해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데는 ‘무경험자로서 한계’가 분명 있어 연애경험의 필요성이 절실하게 느껴졌다 한다. 심지어 스스로 한심하던 생각까지 들었다던데... 체득하지 않고는 공감할 수 없는 게 연애 속 남녀문제에 분명히 있고, 감정의 영역은 이론적으로 접근하는 데도 한계가 있긴 하다.

연애를 통해서 성숙하고 싶고, 연애를 통해 애기를 걸어오는 사람들과 소통하고 이해하고 싶은 그 심정을 연애는 많이 해볼수록 좋다고는 생각하는 나로서 모르겠나만, 그렇다고 해서 섣불리

“그래 그럼 더 용기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연애 문제에 뛰어들고 부딪혀봐, 내 연애경험을 최대한 살려 힘이 되어 줄 테니...”

란 말은 입 밖으로 나오지 않는다.

내가 스스로 잘 풀어내지 못하고 결국 회피한 남자친구와의 조율과정에서의 갈등을 고스란히 친구가 겪게 될까봐 걱정스러운 게다. 그뿐만 아니라 실제 그런 문제에 친구가 봉착했을 때, 내가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지 아직 자신이 없고, 그 지난한 과정을 두 번 정도 되풀이하고도 아직

요령을 터득하지 못했음을 재확인하면서 자괴감에 빠질까 두렵다.

하지만 이런 얘기들을 친구에게 해주는 게 과연 이로울 것일까 또 고민스러워진다. 연애관계에 관한한 백지에 가까운 그 친구가 나의 이런 생각들을 이해할 수 있을까하는 문제는 접어두고라도 ‘친구 나름의 방식이 있을 것이고 운이 좋으면 잘 맞는 사람과 즐거운 연애를 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데.

나의 조언이 친구를 사리게 만들어 결국 좋은 기회를 빼앗아버리는 결과를 낳지는 않을까?

하는 다분히 소심한 생각도 드는 것이다.

이에 더해 한가지 더 솔직히 꺼놓고 말하자면,

‘나도 잘 못한 연애이고 누구나 힘들어하고 해답을 찾지 못해 전전긍긍하는 문제인데, 애라고 해서 별/수 있겠어?’ 하는 오만 반 냉소 반의 심정도 전혀 없지는 않다.

앞으로 연애의 유무가 단짝 친구와의 커다란 벽으로 작용하지 않으려면 세심한 주의가 필요할 듯하다. 지금까지 그 애와 나에게 친구의 의미를 되짚어보게 해주고 관계를 발전시키는 데 많은 역할을 한 주제가 바로 이 연애이기도 하니까. 이날 전화로 서로를 좋아하는 이유, 우리가 잘 맞는 이유를 서로 얘기해주게 되었으니, 참으로 Isn't it Irony!?

\\ 98 _ 이지

2. 비연애인 이야기, 그 첫번째 사실과 진실사이

친구가 생겼다.

그 친구가 나와 같이 서울에 있다. 그 친구 휴학을 한 백수다.

우린 자주 밤에 운동을 한다. 보라매 공원까지 걸어가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한다. 가끔 외로워서 손을 잡아달라는 등 느끼한 얘기를 하면 그 친구 두말없이 [거절]이다.

그건 사실이다.

내가 "나 외로워"라고 하면 그 친구 연애해야 되나부다라고 말한다. 다른 사람들은 언제 연애를 시작하지? 외롭다는 감정이 맞긴 맞는 걸까? 외롭다고 왜 연애를 해야 하는 거지? 내가 외로워서 연애를 시작한다면 난 모든 것을 그에게 걸지도 모른다.



그건 사실일까 진실일까

난 그 친구가 날 별로 싫어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 친구는 스킨십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근데 처음 거절을 당했을 땐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다. 내가 좀 해달라는데 해주면 어디가 덧나나? 내 맘도 몰라주고, 다시 곰곰이 생각해보니 내가 친구와 별반 다르지 않다고 느꼈다.

다른 사람과의 스킨십을 내가 얼마나 좋아할 진 잘 모르겠다. 연습은 해볼 수 있을 테지만 무조건 좋진 않을 것이다. 그래서 배팅은 하고 싶지 않다.

난 내가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주고 싶다.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도 진실일 테니까. 내 진실인데 꼭 있는 그대로를 맘에 두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니냐? 난 그러고 싶다. 다 보여주는 게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보여주고 싶은 만큼만. 좋아한다는 건 진실일지도 모르니까.

왜 다 나누지 못하니까?

그건 ... 그러다간 내 모든 것을 베풀고 말 것 같아서이다. 모든 걸 다 걸었다가 그 사람이 떠나고 나면 감정의 껍질들만 남아 무엇을 주어 답아야 할 지 모를 것 같아서이다.

흠소리거나 거리두기를 친구한테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는 유아적인 내가 다른 사람을 믿고 그 감정을 모두 보여주고 순간을 영원으로 만들고 싶어하는 걸 상상한다는 것이 우선 겁이 난다. 순간 순간 집착하고 무엇인가 휩싸여 나의 다른 것들을 쉽게 포기해 버릴까봐.

외로우면 연애를 해야 하는 걸까? 내가 외로운 건데.. 어쩔 그건 나눠 가질 수 없는 건지도 모른다. 친구가 그러다. "외로워?" 그래, 외로워. 외롭지 않은 사람이 어딴겠느냐....

//98 멋미

연애는 나에게 미지의 영역이다. 문제는 '꼭 거길 한번 들어 가봐야 하나' 싶은 심드렁한 생각이 드는 곳이라는 거다.

세상이 내가 이성임을 끊임없이 자각하게 만들 듯이 (내가 원하지 않건) 세상은 나를 '연애하지 않는 사람' 혹은 '연애도 못하는 (불쌍한) 인간'임을 시사때때로 잊지 않게 해준다. 혼자나고 발발맞게 물어보는 영화관 대표소 직원, 아직도 남자친구(왜 꼭 남자친구라고 생각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없다고 때마다 잊지 않고 물어봐주는 친구들, 집에 내려갈 때마다 4학년이나 됐는데 사귀는 사람 없다고 불안해하는 부모님, 그뿐 아니다. 극장마다 있는 연인석(심지어 어떤 극장은 모든 좌석이 연인석이다), 커피이벤트, 커피링, 커피속웃, 커피인형, 커피홈페이지(커피를 통한 가치창출은 정말 놀랍도록 다양하다)부터 싱글을 커피로 만들어주려는 행사, TV프로그램, 상품까지 그야말로 나는 연애가 넘쳐나는 세상을 살고 있다. 이런 세상에서 나는 연애를 하려고 애써보지도 않는 어딘가 모자라는 애가 되고 말았다. 20대가 된 후부터 연애는 나를 지겹도록 귀찮게 했다. 마치 젊은 시절에 한번쯤은 거쳐가야 할 통과시험 아니면 청년기의 과업이라고 되는 양.

나의 연애 앓음이 끈질긴 고민거리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 싫은 거다. 그래서 '왜 연애하지 않는다고, 연애하려고 노력해보지 않느냐'고 물어볼 때 나는 '난 정말 연애 따위에는 관심도 없어' 하는 식의 달관한 듯한 태도로 '귀찮아' 한마디로 일축해버린다. 정말 귀찮기도 하다. 연애에 대해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 나의 감정과 상대방의 감정을 두고 끊임없이 고민하며 하루에도 몇 번씩 천국과 지옥을 오가야 한다는 것이. '원래 내 인생에 연애 같은 건 없어' 하고 속 편히 생각하는 것 같아 보이는가? 하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그리 간단하지만은 않다. 그럼 좀더 솔직히 말해볼까.

나는 연애가 두렵다. 동시에 두 가지 일을 못하는 나로서는 해야 할 일들이 산적해 있을 때 내 감정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는 게 못할 것이라는 걸 깨달아버렸다.(모든 연애가 감정 속에서 허우적대는 거라고 말하는 건 아니다. 개인적 경험상 누군가를 좋아하게 되면서 고민이 온통 그쪽으로 쏠려 일이 망가지는 경우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연애도 일도 잘해나가는 사람들을 보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한다. 이 대목에서는 이런 식의 자기합리화가 필요하다. '난 지금 다른 걸 고민할 여력이 없어. 성격상 단짝친구를 잘 만들지 않는 나로서는 가장 친밀한 관계(모두 이런 건 아니겠지만 연애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믿고 있지 않나 싶다)를 또 만들고 거기에 적응해야 한다는 것이 두렵기도 하다. 연애에 이르는 길은 또 얼마나 멀고도 험한가. 상대방의 표현에 너무 둔해서도 과민해서도 안되는 그 아슬아슬한 줄타기라니.(나같은 사람은 그게 연애감정인지 아닌지 깨닫는데

3. 비연애인 이야기, 두번째 내가 왜 솔로냐? 그게 왜 궁금한데?

도 정말 한참이 걸린다. 정말 구제불능!?)

물론 두려워서만은 아니다. 내가 아직 새내기였을 때 선배들은 이런말을 나에게 하곤 했다. '머리도 기르고 화장도 하고 옷도 좀 잘(?) 입고 팬스끼고 예쁘게 하고 다니야 남자친구도 생기고 그러지' 이런 말을 들으면서 나는 '있는 그대로의 내 모습을 좋아해 줄 사람을 찾는다는 게 그리 쉽지 않은 일'이었구나. 역시 나는 연애와 연을 끊어야 할까봐 하는 생각을 했었다. 많은 연인들이 연애 속에서 남자는 더욱 남자답게 여자는 더욱 '여자답게' 변해가는(혹은 그런게 서로에 대한 예의라고 믿는) 경우를 보게 되는데, 연애가 '여성스러움'을 발굴해내야 하는 공간이라면 나는 사절이다.

예전처럼 머리를 싸매지는 않지만 아직도 가끔은 난 왜 연애를 안할까, 왜 연애경험이 없을까 고민하게 된다. 그리고 아주 가끔은 연애를 하고 싶다는 생각도 든다. 딱 진 다 상관없는데 '연애를 해보지 않았기에 난 더 이상 자라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는 정말 그렇다. 하지만 외로워서, 누군가 옆에 있었으면 해서, 기댈 곳이 필요해서 하게 되는 연애가 얼마나 더 외로워질 수 있고 위험할 수 있는 지는 어렵게 알 것도 같다. 아마도 당분간 내가 연애라는 미지의 영역에 들어설 일은 없을 듯하다. 나는 아직 그 문을 열어보고 싶지 않다.

//98 투덜

방해마, 강요마, 따부술거야

- 연애각본에 틈새내기



1. 낭만적 연애, 진짜? 가짜?

'여자 3번, 가세요~ 핑핑핑~' '네 여려분~, 오늘은 네 커플이 탄생했습니다.' '축하합니다~', '임성훈 씨, 오늘 밤 사셔야 되겠네요. 호호~'

일출 아침, 일찍(?) 일어나 TV를 켜다 보면 이 프로그램을 안 보고 넘어갈 수가 없지. 청춘 남녀의 짝짓기가 뭐가 그렇게 궁금한지... 잘들 놀고, 서로를 탐색하고, 드디어 마지막 결과가 나오는 순간, 화살표가 주욱 날라가고 몇몇의 커플이 탄생하고.. 모두들 박수를 치는 축하 분위기다. 어느새 상기된 얼굴로 따라서 박수를 치고 있는 나. '헉, 왜 나마저 요리고 있지. 이걸 잘 처리한 쇼에 불과하다구, 남/녀의 만남 자체는 그리 축하할 일이 아니라구~ 우우~' 끊임없이 마음을 고쳐 먹지만, 내 안에 내재된 신비한 사랑의 감각소는 계속 자극된다. '어 얼마나 저울까, 부러버, 열구리 시릴 일 없어서 저랄다.' 순간 시려오는 열구리. '후후, 엔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다시 제정신을 차리고 감상에서 빠져 나온다. "연애라는 것, 결혼이라는 것을 자꾸 낭만적으로 생각하지 말라구~" 스스로 주문을 건다. 뭐, 그래도 복잡한 생각과 심정들이 뒤엉키는 어쩔 수 없다. 첫 사랑이 뭐길래~.

사랑, 그 좋은 거 좋은 대로 봐주면 좋지. 왜 자꾸 복잡하게 생각하고 공시렁거리나고? 성경에도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짙은 사랑이라'고 했는데, 왜 그러냐고? 누가 '사랑'이 나쁘다고 했냐?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가 문제인지지. 누가 그랬어, '사랑은 그 동안 완전히 경험되어졌고, 그 경험이 전달되었는지 모르지만, 결코 '이해'된 적은 없다(Shulamith Firestone)'고, 정말 그런 거 같애. 결국 문제는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는 공허한 질문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라는 글자가 어느 페이지의 어떤 문맥에 써져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지 않을까? 그걸 찾아보자고~

중세시대까지는 사랑이라는 것이 남녀 관계에서, 특히 결혼을 하는 데 그리 중요한 요소가 아니었다. 결혼은 집안 어른들끼리의 협상 결과물이었지. 사랑의 감정에 빠지는 것은 상사병이라는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비정상적인 것으로 간주되었다고 하네. 참 이상한 일이지? 그러다가 근대에 연애 결혼이라는 것이 부상하지. 연애결혼은 서구에서 산업혁명 이후 근대화 과정에서 낭만적 사랑에 근거하여 새로운 핵가족을 창출하지. 기존의 봉건적 유대 관계에서 벗어나서 도시에서 노동자로 생활하면서 첫 눈에 반하는 낭만적 사랑을 통해 짝을 찾아 결혼을 하여, 남편은 생계를 책임지고, 아내는 가정을 돌보는 그런 가정을 이루었지. 따라서 연애결혼은 부모와 관계없이, 남녀의 가족적 배경과 조건과 관계없이 사랑의 포로가 되어 짝짓기를 하는 것이었어.

그리고 보면 연애 (혹은 연애결혼)가 그리 나빠 보이는 것은 것처럼 보여. 각자가 가족의 간섭에서 벗어나 서로의 감정과 선택에 의해서 만나려는 것이니까. 특히 그 시대의 여성들은 가정에서 벗어나서 일정한 자율성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낭만적 사랑에 기댔을거야. 음, 근대 그러한 의도들은 (실제 역사적 결과들과 대비해 보면) 낭만적 사랑의 원형과 이상화에 불과했다는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군. 실제적인 사회적 조건들을 생각해보면 낭만적 사랑은 남/녀가 철저히 권력의 면에서 비대칭적이라구. 낭만적 사랑에 대한 여성들의 꿈은 너무나 자주 완강한 가정적 종속으로 귀결되고 말았잖아. (왜 그 잘나가

고 인기 좋던 하회라는 결혼 후에 가정용품 선전에만 나오게 되었을까?) 요컨대 우리는 사랑을 사랑 그 자체로 보아서는 안된다구. 그 사랑이 어떤 조건에서 나오느냐, 그리고 그 사랑의 효과는 무엇일까를 잘 따져봐야 한다구.

그런 조건과 효과에 대한 숙고 없이 무턱대고, 사랑과 연애에 휘둘리는 것은 여성에게 충분히 억압적일 수 있다고 봐. 우선 사랑은 남성에 대한 헌신과 희생을 부추기고 미화한다는 측면에서 성역할 고정관념과 남성중심주의가 강요하는 여성성을 강화할 수 있지. 또한 사랑은 불평등한 권력관계를 상애화함으로써 (거 있잖아 댄탈 티비에 나오는 거, 남자가 강제로 키스하는데도 로맨틱하게 처리되는거.) 남녀관계를 '평등한' 개인간의 감정적인 관계로 치환시켜버려. 여성과 남성의 불평등은 사랑의 합일 논리(불완전한 반쪽이 만나 온전한 하나를 이룬다/ 음과 양의 합일을 이루다)에 묻혀 중립되기 십상이고, 또한 세계적으로 강요되는 이상에도 문제다. 이성애만이 정상적이고 유일한 사랑이라는 가정은 교육, 종교, 문화, 미디어, 결혼/가족제도, 법률, 복지 정책을 통해 지지되고 설교되며 사회적 성원들을 이성애자가 되도록 강제하고 있어. 따라서 남성과의 관계맺음은 자연스러운 순리로 인식되며 이성에 이외의 대안적인 성애나 친밀성의 관계방식이 있다는 사실은 은폐된다구. 이러한 이성애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는 특히, 여성으로 하여금 남성과의 관계에 에너지를 투입하고 집중하게 하고 남성에 대한 성적, 감정적, 경제적 의존을 유지시키는 기제로 비판받을 수 있어. 이성에 제도와 이데올로기의 작용을 통해 여성들은 서로 연대하기보다는 경쟁하게 만들지.

왜 그리 비판적으로 서술하나구? (타당성이 있는 걸 어떡하랴. 나도 싫다구 이런 비판적 분석은, 후후.....) 그래서 여자들은 연애하지 말라는 거냐구? 내 말은 그러니까 연애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기왕 연애를 할 수 밖에 없다면, 잘 하자는 것이지. 그래도 요즘은 기존의 고정화되고 미리 짜여져 있는 사랑과 연애의 각본에서 벗어나 탈주선을 타려는 움직임이 보이는 것 같애. 여성들이 낭만적 사랑에 폭 빠져서 허우적대지 않고 자기의 일과 영역을 확보하고 또한 다른 관계맺음과 균형을 잡아가면서, 나름대로 관계에 있어서 주도권을 잡아 나가려고 하고 있지. 그리고 자신의 욕망을 상대방에 투사하지 않는 거.. 이거 정말 중요한 거 같애. 사랑의 감정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면, 이것이 진실로 내가 원하는 일일까하는 판단이 잘 서지 않는다구. 결국 '사랑'의 이름으로 애매모호하고 별로 원치 않은 일들도 하게 되구. (오.. 얼마나 찜찜하겠어) 개인적 경계를 어느 정도 분명히 하는 것이 '친밀성'을 발미로 하는 강요적이고 불평등한 관계를 재조정할 수 있는 길일거야. 그렇게 생각한다면

요즘에 제도적 결혼에서 벗어나 동거하는 관계를 고려해 보려는 현상(을 나라는 인식 면에서 부정적이고 제도적 뒷받침이 없어서 아직 현실적으로는 많이 힘들지만), 이혼율이 늘어나는 것도 (사회 일각에서 바라보는 것처럼) 부정적으로 바라 볼 필요 없을 것 같애. 기존의 제도화되고 정형화된 관계 틀에서 벗어나려는 시도의 반영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서로 만족하지 못하면 언제든지 헤어질 수 있는 것. (혹자는 너무 일회적이다/이기적이다라고 보는데) 영원한 사랑/영원한 관계를 맹신하는 것은 비현실적이지 않을까. 차라리 인정할 것은 인정하자구. 원치 않고, 질질 끌고 만족하지 못하는 관계를 지속하기보다 그런 어정평함을 청산하고 새로운 관계를 찾아 스스로 자기만의, 자기가 원하는 연애 이야기를 만들어 가는 게 더 속편하지 않을까?

참.. 지금 내가 뭐 '평등하고 주체적이고 서로 만족하는 관계를 만들자'고 어쭙잡게 이론 내부맹이 도입하면서 얘기하는 동안에도, 한국사회는 아직도 봉건적, 이성애적, 남녀 불평등적 각본을 계속 산출하고 있지. 거 말야, 내가 켈 처음 얘기했던 프로그램, 요거는 남자 = 능력 / 여자 = 외모라는 공식을 나름대로 충실히 따르고 있는 프로그램이야. (그것이 티브이 속에서만 연출되는 것이라고 믿을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또 아직도 낭만적인 사랑 이야기가 담긴 노래 가사들은 인기가 많구 (꼭 청송맞은 노래가 아니더라도, 왁스의 '오빠' 같은 노래 있잖아.) 그래도 우리 굴하지 말자구. 특권화되고 성역화된 '남녀간의 사랑'을 넘어서 (사랑은 너무나 다양한 방식으로 만들어 질 수 있고 또한 비판받을 수 있는 영역이어야 한다고~), 고정된 성역할 틀의 연애를 넘어서, 평등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조건들을 만들고 그러한 관계의 경험들을 모아 나가자구. 그러다 보면 (한 가지로 정형화될 수 있는)연애라는 '고유명사'는 남지 않고, 풍부하고 열려있는 인간관계의 망들이 구성되는 불행스러운(?)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을거야. 요렇게 내가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말투로 오만하게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 나도 고민 중이라구. 너도 같이 할 수 있겠지? ARE YOU READY?

//by ____ 줄러



2. 가사 읽기

Oops!...I did it?



분명히 말해두지만, 난 브리트니 스피어스의 광팬도 아니며, (한때 그런 적이 있었음은 부인하지 않겠지만) 무조건적인 꼬부랑 노래 숭배자도 아니다. 솔직히 난 브리트니 같이 이쁘장한 애들이 이쁘게 키워져서 이쁘게 빙글 빙글 노래부르는 현실을 무지하게 혐오하는 사람이며, 이런 애들이 부르는 노래들이 의무교육 12년을 거친 사람이라면 누구나 지나는 기본적 독해실력으로 충분히 간파할 수 있을 유치원학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음에 조소를 보내는 인간이기도 하다.

그/럼/에/도/불/구/하/고, 나는 그 브리트니를 가지고 이 글을 쓴다. 나라는 인간이 그녀에 대해 지나는 기본적인 불신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노래들이 풍기는 향취가 때로 나를 혹하게 만들기도 하기 때문이다. 특히 2집의 타이틀곡이었던 이 노래는 더더욱 그랬다. Oops!...I did it again.

한국에서 싸이가 "나 갓긴 싫고 남주긴 아까운거야 이 10원짜리아!"라며 저주의 말을 퍼부어 대고 있을 때 눈 하나 깜짝 안 하면서 "어머 나 또 그랬네Oops! I did it again"라고 천연덕스럽게 대꾸하고 있을 게 아마도 브리트니가 아닐까. 1집 때 "자기가 한번 더~baby one more time"를 외치며 못 남성들의 입가엔 만족스런 미소를, 그러나 내 입가엔 조소를 띄게 했던 그녀가 1년 후에 낸 앨범에서는, 엽기 싸이를 씹어 줄 정도의 힘을 길러서 (그것도 한발 앞서서) 나타나다니. 재밌지 않은가!

억지라고 해도 좋다. 오버라고 해도 좋다. 하지만 난 브리트니가 2집을 통해 들고 나온 컨셉이, 1집과는 무지하게 대조적인 그 컨셉이 주체적 여성의 적극적인, 새로운 연애 관계 추구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다고 생각했다. 1집 때만해도 그녀는 순진무구 청순가련 노력봉사 100%의 귀여운 소녀였다. "난 널 기쁘게 하기 위해 태어난거야" was born

난 널 기쁘게 하기 위해
태어난거야
I was born
to make you happy
수줍어하기 싫은데,
왜 이런지
혼자 있을 때마다 고민해
I don't wanna be so shy,
Everytime that
I'm alone I wonder why

to make you happy", "수줍어하기 싫은데, 왜 이런지 혼자 있을 때마다 고민해I don't wanna be so shy, Everytime that I'm alone I wonder why" 아주 전형적이지 않은가? 사랑하는 이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 이 한 몸 바치는 수줍은 여자친구. 오호라~

하지만 얼마동안의 내공충전 후 다시 나타나서는 "이런! 또 일을 저질렀네. 널 가지고 놀았어. 어쩔까나? Oops!...I did it again/I played with your heart, got lost in the game"라고 말하며 "내방식이 아니면 아닌거지 모 Now it's nothing but my way."라고 내뿜듯 말한다. 내가 원래 그런 사람인데 뭐 어쩔진데? 내 감정이 그렇게 가면 그런거고 아니면 아닌거지 모, 안 그래? "난 그리 순수한 사람이 아니라구! I'm not that innocent."

그 수줍었던 청순가련 소녀가 이제는 두 눈 똑바로 쳐다보며 말한다. "호오! 너 내가 사랑에 빠졌다고 생각하는구나? Oops!...You think I'm in love" 푸/하/하. 더 이상 눈물 그렁그렁 맺힌 눈으로 한 사람만을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는 소녀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제는 나를 알고 내 감정에 충실한, 내가 원하는 사람을 선택할 수 있고 그러다 맘에 안 들면 뒤도 안 돌아보고 차버릴 수도 있는 여성이 지금 여기 서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는 아마도 현대에 있어서 보여주는 변화한 연애상의 대표적인 모습일지도 모른다. 낭만적 연애의 환상에서 벗어나, 일대일의 구속적인 관계에서 탈피하는 것. 상대방을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 온몸 바쳐 노력봉사하다 되려 그 연애관계에 먹혀버리고 마는, 종속적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 내 감정, 내 생각을 분명히 제시하고 관찰시킬수 있는 것. 그래서 디바 언니들은 브리트니 보다 한술 더 떠 아예 이렇게 말하지 않던가. "1,2,3, that's to 여기까지 할래 셋으로 끝낼래...어떻게 나는 둘을 위해 이렇게 셋이서 영원히 사귀었으면 해"라고.

흠, 그렇게 변화해 가는 연애상을 브리트니는 이 한마디로 간결명료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 아닐런지..

"Oops!... I did it again"

ps: 재밌는건, 이렇게 "무서운 왕가덕" 아가씨들이 목청 높이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당신은 모르실거야 얼마나 사모했는지 뒤돌아 봐 주세요 당신의 사랑은 나요"라며 지고지순한 사랑을 두 손 모아 노래하고 있는 요정들이 여전히 세 과시를 하고 있다는 것.

흠, 역시 우리 사회는 탈근대와 근대가 공존하는 역동적 사회이긴 한 것 같으니.

// 99 _ 디퍼



3. 만화 별점소개

거기에 다른 연애가 있었네

오늘도 만화에서 수많은 사랑과 연애를 만납니다. 하지만 세상변화처럼 잊은 사랑타령과 뼈뺀 착하는 왕자와 안 예쁜 착하는 공주이야기는 현실의 연애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뿐입니다. 뭔가 다른 고인의 흔적이 배어든 연애는 없을까요?



그 남자 그 여자 (Masami Tsuda, 학산문화사)★★★★

모범적인 새침때기 여고생과 우등생 남자가 만난다면? 달걀 돌리는 베스트커플이 되기 보다는, 자신에게 그리고 서로에게 솔직해지기로한 두 사람. 그들이 연애를 통해 성장해 가는 모습은 따뜻하지만 합니다. 연애의 가장 큰 매력은 자신의 감정에 솔직해 질 수 있는게 아닐까요?

아름다운 시절 (mieko oasaka, 대원씨아이)★★★★

더 많은 이해와 배려 그리고 연애에서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모습들. 연륜은 연애를 더욱 풍부한 관계로 만들어줍니다. 30대 여성들이 만들어가는 다양한 연애 그리고 일 이야기. 조금 성숙한 관계를 꿈꾸는 분들은 꼭 읽어보시길!



맘보걸 키쿠 (Nakayama Noriko, 서울문화사)★★★★☆

가볍고 재밌는 키쿠가 착한 여자 콤플렉스에 시달리는 여성들에게 던지는 연애에 관한(?) 메시지는 길들여지지 않는 주인공 키쿠의 당당한 모습은 연애에서 보여지는 전형적인 남녀모습을 뛰어넘습니다. 그리고 키쿠·토키와 커플의 솔직하고 대담한(?) 감정표현과 사랑표현도... 키쿠 자매들의 연애사를 알고 싶다면 [Go Go Girls]를 보시길!

금지된 사랑 (한예원 서울문화사)★★★★☆

사랑과 우정, 그 미묘한 관계는 여·남 사이에만 존재하는 게 아닐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여자친구와 나는 다른 관계를 꿈꾸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4명의 여자가 경험하는 각기 다른 연애, 규정할 수 없는 여자들만의 친밀함, 우정이 섬세하게 표현된 작품.

love piece... love peace (문종미, 서울문화사)★★★

사랑과 섹스의 간극들과 섹스에서 느끼는 공허감. 자신의 성적욕망에 충실해진다는 것. 그리고 사랑을 하고 연애를 한다는 것에 대한 수많은 물음표와 고민들. 사랑은 아름답고 달콤한 것만은 아닌 것 같네요.

정거장을 위하여 (이강주, 서울문화사)★★★

딱딱한 겉질 안에 갇혀있는 녀석, 끊임없이 자신을 드러내면서 자신의 불안을 달래는 또 한 녀석. 각기 다른 상처를 안은 두 녀석은 사랑과 연애를 찾아나서지만... 결국 사랑은 가까이에 있기 마련이고, 익숙한 것이 사랑일지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 min/언니네 www.unninet.co.kr 편집위원

4. 가상 인터뷰

순정만화에서 흔하지 않는 히로인 '맘보걸 키쿠'

초대손님 - "맘보걸 키쿠"의 키쿠
오늘의 주제는? "토키와와의 연애"에 대하여



K: 해해, 사실 저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제일 궁금하게 여기는 부분이 토키와와의 연애가 아닐까 싶어요. 토키와한테 하는 거 보면 통쾌해질 때가 많거든요. 어쨌든 다른 순정만화와는 정말 다른 느낌이에요. 보통 순정만화에서는 말괄량이에 힘세던 여자에도 좋아하는 남자 앞에 가면 얼굴 빨개지면서 흐물거려서 마음에 안 들었었는데...

키쿠: 어떻게 그런 살벌리는 애들이랑 이 키쿠님을 비교하냐? 토키와가 좀 이상한 성격에 수동적이어서 그렇지, 우린 그냥 현실적인 연애를 하고 있을 뿐이라구! 화나면 싸우고, 사소한 것에 서로 빠지기도 하고, 누가 더 사랑하나 신경전도 벌이고... 짝사랑할 때나 얼굴 빨개지지는 몇 년씩 사귀는 사람한테 그렇게 해롱거리는 사람이 어디 있어.

K: 폭력에 대한 남다른 생각이나, 관계를 주도해 나가는 면들 때문인지, 어떤 사람들은 현실연애의 남녀 역할이 뒤집혀져 있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래도 꼭 마지막에는 토키와가 멋있게 등장하여 감동 주고 끝나는 걸 보면 꼭 그렇지만도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키쿠: 솔직히 내가 폭력적이라고 해봤자, 그게 폭력이야? 폭력적인 소년 만화들이나 한 번 보고 그런 소리하라고 해. 그리고 토키와가 하는 짓을 봐봐. 열 안 받게 생겼나.. 남녀관계가 뒤집힌 거든 말든, 다 자기를 좋을 대로 관계를 맺는 거지 정답이 있는 건 아니잖아. 우리는 토키와가 워낙에 소년적인 성격(먼저 다가오지도 않고, 먼저 사과하지도 않는 그

런 면이)이라 어쩔 수 없이 내가 먼저 손을 내미는 거지. 그건 나도 불만이라고! 막판에 토키와가 멋지게 등장하는 건 나도 좀 마음에 안 들지만, 갓 내가 아무리 감동적으로 대해줘도 머리가 나빠서 눈치를 못 채는 걸 어떻게 해, 감동받을 줄 아는 솔직한 키쿠라고 생각해 줘...

K: 그리고 키쿠님의 러브스토리를 보면, '아, 이런 연애 한 번 해보고 싶다'는 환상을 갖게 되는데, 솔직히 키쿠님도 남자를 잘 만난 덕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키쿠: 토키와는 성격이 좀 모나긴 했지만 그 정도면 객관적으로 훌륭하지. 집안 좋겠다, 얼굴도 그 정도면 괜찮고, 미용사로도 전도유망하니까. 개인적으로도 토키와는 나랑 잘 맞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 사고방식이 비슷한 데가 많아. 사회적인 인습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자기 스타일대로 산다거나, 큰 야심이 없다거나, 뭐 그런 것들. 그렇다고 내가 끌릴 건 없다고 생각해. 나 아니면 그 속 좁은 로봇 같은 놈을 누가 또 받아 줘? 그리고 아무리 내가 행동을 막는 것처럼 보인다고

만, 내 나름대로 지킬 건 지키고 살아. 예를 들어 함부로 타인의 공간을 침범해 들어가지 않기.

K: 그래도 키쿠님은 목하면 바람 피우는데, 그걸 참고 사는 걸 보면 토키와도 마음이 바다같이 넓거나, 이상한 남자인 것 같아요.



키쿠: 폭발하게 그 얘기는 왜 꺼내고 그나마...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는 거지, 어떻게 한사람한테만 한결같은 마음일 수가 있어? 물론 그것 때문에 헤어지라고 해도 할 수 없지만...

K: 만약에 토키와가 바람피우면 어떨 것 같아요? 키쿠님도 상관없어요?

키쿠: 응... 열어야 받겠지만 자은 죄가 있으니 용서해 줘야지. 물론, 응당의 댓가를 치르고...^^

K: 연애에 대해, 또 남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요?

키쿠: 천방지축에 항상 해해거리니까 언제나 명랑하고 씩씩한 줄만 아는데, 나 사실 알고

보면 되게 잘 울어. 어릴 때부터 누군가에게 혼자만 애정을 독차지해 본 적이 없어서인지 나만 바라봐 주고 나를 제일 먼저로 생각해 주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고... 막 어리광도 부리고 싶어. 그건 꼭 남자가 아니더라도 상관 없을 것 같아. 남자는 애완동물하고 같다고 생각해. 갖고 싶어서 열심히 찾는 사람도 있고, 우연히 즐기는 사람도 있고, 없어도 전혀 문제없는 경우도 있고.

K: 토키와랑 앞으로 결혼하실꺼예요?

키쿠: ㅎㅎㅎ... 그건 아직 비밀이지... 작가 선생이 얼마나 괴팍인데 앞으로의 줄거리를 얘기해 줄 틈이 없지. 만화책 다음 권 나올 때까지 기다리시라!

K: 공식적으로 질문할 만한 건 다 한 것 같아요. 우리, 인터뷰는 이쯤하고 술이나 먹으러 가요. 개인적으로 묻고 싶은 게 너무너무 많거든요. 히히, 그 눈보다 코가 더 높이 달려있는 강아지 인형 어디서 샀는지도 꼭 알려주셔야 되요... 참, 잊을 뻔했는데 마지막으로 독자들에게 인사나 한 말씀 하시길...

키쿠: 아무래도 만화세계가 아니다 보니, 본모습을 다 못 보여 드리고 떠나게 되네요. 이런 막돼먹은 인간이 인기를 모으고 있다니, 어지간히 불만한 만화책이 없는가 봐... 헤헤, 농담이구요. 만화세계가 원래 좀 과장이 심해서 그렇지, 사실 키쿠나 토키와는 일상을 살아가는, 여러분 곁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인물입니다. 아무튼 불러주셔서 감사하구요, 사회 생활을 겪으면서 하루하루 조금씩 성숙해가는 키쿠를 지켜봐 주세요!



애당초 계획은 발랄하고 개성있는 키쿠의 말투를 최대한 살려서 인터뷰를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글발이 팔리다 보니... 영... 느낌 안 사네요. (눈은이 말투라는 주위의 구박이...T.T) 뭔가 미흡하다고 생각되는 분은 책에서 직접 키쿠를 만나보세요.

//언니네 편집팀/ unninet@unninet.co.kr

행사 소개
야외판

태초에, 서로를 사랑하는 (내지는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두 사람이 있었으니, 이 둘을 어여삿 여기사, 하늘님은 열가지의 계명을 내려주셨더라, 이를 슬쩍 살펴보건대, 다음과 같더라.

〈부부 10계명〉

1. 남편이 분할 때 맞서지 마라
2. 아내의 좋은 점은 자주 칭찬해 주어라
3. 밖에서 돌아온 남편에게 첫말을 조심하라
4. 아내의 생일이나 기념일을 메모, 기억해 두어라
5. 남편의 호주머니를 뒤지지 마라
6. 아내의 실수가 남편에게도 책임이 있음을 인식하라
7. 남편을 존중하며 반주 한잔 대접할 줄 아는 아내가 되라
8.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항상 아껴 주어라
9.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에는 늘 신경을 써라
10. 퇴근 후 1차, 2차 가정 불화 시초니라

철썩 같이 하늘님의 계명을 믿고 받든 두 사람, 행복하게 오래오래 잘 살았다하더라....
...이길 바랬으나, 과연?

고리타분한가요? 하지만 현실에는 여전히 수많은 연애, 커플, 사랑 등등등의 10계명들이 넘쳐납니다. 그러나 과연 그 10계명에 나 그리고 상대의 바램은 얼마나 온전히 녹아 들어있는 것일까요? 나와 내가 불편해지지 않는 관계, 나란히 함께 갈 수 있는 관계를 만들기 위한 지침이라고 하는 것들이 오히려 서로를 옥아매고 뻘뻘한 연애 각본 속에 내던지는 것은 아닐는지. 이에 이번 "연애대련" 행사에서는, 뻘뻘한 연애 관계를 위한 커플 10계명, 연애 10계명 공모전을 열어보고자 합니다. 두 사람의 충분한 의사소통과 서로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두 사람이 각자가 연애관계 속에서 바라는 점들을, 솔직 담백하게 표현해주세요. 6월 4일과 5일, 양일에 걸쳐 학생회관 앞에서 만화자보전, 'Before after'와 함께 이루어집니다. 많이 많이 참여해주시길~!

....그리고 사실 공모도 공모지만, 이번 행사가, 서로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해보는 좋은 기회도 되지 않을까요? ^^